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죄악에 물 들고 사상은 점점 혼탁해짐으로 성도의 기록함을 저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직 주 만 바라봄으로 어떤 위기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에 수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6월 18일 (토) 제 158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주말새벽 또 총기난사...미국사회 충격!

#### 미 언론, 플로리다 올랜드 사건 일제히 '테러와 연계' 보도

미국의 한 클럽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일어난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 수인 32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출동한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숨진 용의자의 신원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인 오마르 마틴(29)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12일 새벽 2시께 플로리다주 올랜드에 자리한 게이 전용 클럽인 '펠스'에서 발생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무기를 든 괴한이 나타나 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클럽 안에는 주말을 맞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5시께 특수기동대(SWAT) 팀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클럽 내부에서 인질을 잡고 있던 용의자의 총격전 끝에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총기 난사로 50명이 숨졌으며, 부상자 5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잘 준비된 개인의 테러 공격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를 테러리즘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혹은 국제적인 테러 공격인지, 그리고 '외로운 늑대'의 소행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담당자인 론 호퍼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관이 있는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에) 경도된 개인의 소행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올랜드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인 오마르 마틴(29)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911에 전화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충성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슬람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자생적 테러'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 탐파지부의 로널드 호퍼 부지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

### '유명인 되려는 모방심리' 측면도 다분



올랜드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군이 조사하고 있다.

틴이 범행 현장인 펠스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를 하기 직전 911에 전화해 IS(이슬람국가)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다른 연방 관리들은 마틴이 IS에 충성 맹세를 했으며,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에 좀 더 분명히 밝혔다.

부모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인 마틴은 테러 관련 혐의로 연방수사국으로부터 두 차례 심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호퍼 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마틴이 테러리스트와의 연계 가능성을 동료들에게 선동적으로 발언해 연방수사국이 2013년 마틴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퍼 부지부장은 조사관들이 "그의 말의 실체를 검증할 수 없어"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폭스뉴스는 IS와 연계된 뉴스통신사 '알 아마크'를 인용해 IS가 이번 사건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사에 관여하고 있는 대테러 담당 미국 관리들은 마틴이 IS나 다른 민병대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정보부서 당국자는 IS의 주장에 대해,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대원들 및 영토의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IS의 주장만으로는 그들의 지시에 의해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3면으로 계속)

### 지구촌 '현대판 노예' 4,580만 명!

#### 뉴스위크, 세계노예보고서 통해 인권 유린 상황 보도

지난 5월 31일 발표된 제3차 세계 노예 보고서(Global Slavery Index, GSI)에 따르면 현재 세계 167개국에서 458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판 노예'란 위협과 폭행, 강압, 사기 등으로 개인의 의지로는 착취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아동착취, 성매매 등에 시달리는 이들은 채무 계약 등의 형태로 묶인 채 고기잡이배나 유흥가, 공장 등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한다. 특히 현대판 노예의 3분의 2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착취당하고 있다(Global Slavery Index 2016 Estimates 45.8 Million People Trapped In Modern Slavery).

### 인신매매, 아동착취, 성매매 이유 채무계약에 묶여

호주의 인권단체인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 WFF)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노예로 태어났거나 매춘을 위해 인신매매되거나 부채를 갚지 못해 노예로 일하는 사람이 2014년의 3,580만 명에서 올해 1000만 명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인구 대비 현대판 노예의 비율로 따지면 북한이 20명 당 1명꼴로 가장 높았다(인구 2500만 명 중 4.4%가 현대판 노예로 추정된다). 북한에선 강제수용소에서 정치범이 강제노역에 종사한다. 북한 여성들은 강제결혼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 상업적인 성 착취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판 노예가 수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세계인구 2위국)였다.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1,835만 명이 강제노동과 아동착취, 성매매, 강제결혼 등으로 고통 받는다. 인도 다음으로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중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이들 아시아 5개국의 노예 상태 인구가 세계 전체 노예 인구의 58%를 차지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2면 **여름방학은 저소득층 가정에 '잔인' 한 시기(?)**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3면 **인터뷰** 새찬양후원회 김명환 선교사



# Southern California Seminary

Southern California Seminary(SCS)는 미국 학교로는 처음으로 **심리상담학 석사(MACP)**와 **결혼 가족 치료사(MA in MFT)** 그리고 **심리상담학 박사(Doctor of Psychology)**를 한국어 과정(한/영 이중언어)으로 개설하였습니다.

**BBS Board of Behavioral Sciences**

**California Board of PSYCHOLOGY**

SCS 는 미 연방정부 TRACS 인가 학교로서 The California Board of Behavioral Science와 California Board of Psychology 에서 인증 받은 학위과정 입니다.

\* I-20 발행-유학생 환영

### SCS의 Behavior Sciences 대학원은

- 석사 및 박사 과정 후 CA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 면허를 취득하시면 직접 클리닉 개업 가능합니다.
- 졸업생들은 전문상담사, 임상 심리 치료사, 가정사역자 등 비영리 기관, 병원, 교회 등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 동급의 다른 학교 학비와 비교해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하실 수 있으며 수시입학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보조신청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이 가능하며 부부장학금, 교회 및 기관 사역 장학금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상담, 약물중독 상담, 전문코칭 등 여러 상담 관련 교육 과정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NEW

- MA in Christian Ministry (신학부 석사과정: 평신도, 직분자, 교회 리더를 위한 1년 석사과정 개발) 한국어 신학부 : 안국환 교수 kukwhan.ahn@socalsem.edu, 619.201.8982

### 심리학교수님 초빙

박사학위 및 라이선스 소지하신분 자기소개와 이력서를 samuel.lee@socalsem.edu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500 Wilshire Blvd. Suite 700 Los Angeles, CA 90057  
www.socalsem.edu/korean

이사무엘 samuel.lee@socalsem.edu 323.529.3339 / 323.205.5880  
이윤진 yunlee@socalsem.edu 323.248.1648





# 시론

## "혐오범죄(hate crime)를 경계하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지난주일(12일) 오전 2시에,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게이 바(Pulse)에서 50명이 사망하고 53명이 중경상을 입는 미국 역대 최악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은 아프리카니스탄계 이민 2세로 밝혀졌다. 그의 아버지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은 평소 동성애를 혐오하였으며, 사건 발생 몇 달 전 거리에서 게이 커플이 키스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분노했다고 한다. 이슬람교도의 호모 포비아(homophobia, 동성애 혐오)가 범행 동기일 가능성이 크다. 유력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즉시, "모든 무슬림의 입국 금지조치"를 선거 전략으로 재 철회하고 있다. 동성애 혐오

범죄에 대한 이슬람 포비아(Islam phobia, 이슬람 혐오)로 맞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우리 사회 안팎에는 이처럼 다양한 혐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혐오범죄(hate crime)'란 '증오범죄(憎惡犯罪)'라고 해석될 수 있는 용어로서 특정한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지향 등 특정 집단에 증오심을 가지고 테러를 가하는 극단적인 범죄 행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나찌즘, 파시즘, 공산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때 미국 내에서 KKK단이 있었다. KKK(Ku Klux Klan, 원 집단)는 백인우월주의 집단으로서 백인을 상징하는 흰색 천으로 온몸을 감싸고 흰 두건을 쓰고 다니며 자신들과 다른 인종들, 특히 유대인들과 흑인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으로 테러를 일삼았다. 이들의 출현은 흑인들의 정치적 진출을 막기 위해 흑인들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협박하며 테러를 가했던 것이다. 1999년 4월 콜로라도 주에서 빛어진 콜럼비아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2007년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 국적의 15세의 한 학생에 의해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 2015년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시의 한 흑인교회에서 백인에 의해 자행된 총기난사 사건들은 한결같이 소수 인종 차별과 종교적 편견에서 비롯된 일종의 증오범죄였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 역시 여성혐오 범죄였다. 정신 병력이 있었다고 알려지지만, 그 기저에는 사회적, 심리적 맥락이 유관하기에 평소 여성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상처 혹은 소통 장애에 따른 여성 증오심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혐오범죄들의 기저에는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 혹은 자기 보호주의(self-nativism)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문화(민족) 중심주의 혹은 자기 보호주의는 철저히 자문화의 가치와 습관(오래된 전통 또는 관점)을 다른 문화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기에, 다른 여타의 문화에 대해 교제의 문을 닫으며 나아가 배척하거나 증오하여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한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며, 모든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퍼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중화사상'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 이러한 중화사상에서 중국은 때로 자국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국가를 동이, 남만, 북적 등으로 부르며 자신들과 다른 민족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해왔던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정세는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에 의한 갈등과 대결국면의 긴장이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기독교 선교역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 선교에는 제국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서구문화가 우월하며 타 문화들은 열등하다고 인식하여 복음전파라는 명목으로, 서구문명으로 이식시키려는 패권주의적 경향을 낳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단일한 문화적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함께 어울려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놓이는 평화의 나라이다. 그 어떠한 혐오주의는 또 다른 문화적 패권주의일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에 대해서는 혐오하지만, 그 문화에 대해서는 구속의 대상이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문화적 맥락에서 복음의 접촉점(Gospel contact point)을 찾아야 한다.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다. 혼합주의적이어서도 안되지만, 패권주의적이어서도 안된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사11:6-8) 평화의 나라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대속이 만나는 복음의 접촉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마음으로(빌2:5-11) 십자가의 인류학을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johnjic@yahoo.com

# 여름방학은 저소득층 가정에 '잔인' 한 시기(?)

## 뉴욕타임스, 여름 특별 프로그램에 보내지 못하는 딜레마 소개

"올여름 자녀에게 어떤 뜻 깊은 방학을 선물하실 예정입니까?" 이 질문을 (미국 학부모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바꿔보자. "이번 방학 때 자녀는 어느 캠프에 보내세요?" 좀 더 직접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다. "일주일에 얼마짜리 캠프죠?"

보통 두 달 반 가까이 되는 미국 학교의 여름방학은 아이들에게는 학교에 안 가고 뛰어놀 수 있는 신나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아이들 방학이라고 일을 쉴 수 없는 부모에게는 사실 여간 골치 아픈 기간이 아니다. 말이 좋아 방학이지, 여름 캠프든 보충 수업이든 아이를 어딘가에 보내야 하는데 여기

서 부모의 재력 차이가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의 방학 계획을 묻는 말은 결국 괜찮은 캠프나 교육 프로그램에 보낼 만큼 저축을 해두었느냐는 질문이기도 하다(캠프라고 해서 몇 말 타고 오는 여행이 아니라 여름방학 때만 열리는 체험 학습이나 학원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델란토니아 (KJ Dell'Antonia)가 "여름방학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가족들(The Families That Can't Afford Summer)"이라는 제목으로 저소득층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짚었다.

어떻게 보냈느냐로 설명된다. 연구도 있다.

그렇다면 여름방학 동안 방과 후 학교나 일종의 보충수업을 더 많이 개설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실제로 2013년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1/3은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여름방학 동안 그런 프로그램에 보냈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방학 학교나 보충수업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라스베가스에서 법원 서기로 일하는 룩사나 카스틸레호 씨는 올여름 8살 딸을 어느 캠프에 보낼지 여전히 찾고 있다. "정말 근사한 캠프 많죠. 하지만 그런 건 일주일에 500달러 이상 내야 해요."

카스틸레호 씨는 그나마 프로그램이 괜찮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캠프를 찾았다. 가격은 일주일에 175달러. 하지만 일주일에 550달러를 버는 카스틸레호 씨가 집세를 내고 생필품을 사고 남편 여전히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비용이다.

"평소에 저축이란 걸 할 여유가 도저히 없는걸요. 그렇다고 생활 보조를 받을 처지는 또 안 되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41살 톨란다 바르네트 씨는 올여름 6살 난 아들에게 무언가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 바르네트 씨는 얼마 전 열심히 모은 돈을 다 털어 가족이 1년 가까이 살던 보호소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리고 나니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가장 저렴한 여름 캠프에도 아들을 보낼 돈이 없다. 12살 딸에게 아들을 맡길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놀고 친구들 가는 캠프에도 가고 싶을 딸에게 방학 내내 동생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기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다. 어떻게든 여섯 살 아들을 보낼 어딘가, 무언



## 보충수업, 방과후학교 등 프로그램 재정 지원 늘려야 여름방학 캠프나 교육관련 비용도 세계 혜택 주어야

가가 있을까 열심히 찾고 또 찾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다고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학교들이 학사 과정에 여름방학을 10-11주 정도 편성하는 데는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다. 방학 동안 아이를 돌보고 공부가 끝가지 않도록 지도해줄 부모가 집에 한 명은 있으리라는 가정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인 가정 네 집 중 한 집 정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맞벌이 부부 혹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적잖은 아이들에게 방학은 아무도 놀아주는 이 없는 집에서 보내야 하는 '할 일 없는 시간'이다.

"신나는 방학, '학교 밖으로 나가 더 큰 배움을 실천하는 방학'은 갈수록 한정된 계층에만 허용된 값비싼 소비재가 됐다. 아이와 함께 뒷마당에서 스프링클러로 물장난을 하며 더위를 식히는 즐거운 시간, 로봇 캠프에 가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행복한 방학은 더 이상 누구에게나 허용된 여

름방학의 모습이 아니다.

2014년 조사에서 미국 부모들은 여름방학 동안 아이 한 명당 평균 958달러를 쓸 계획이라고 답했다. 여름 캠프나 보충 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에 아이를 보낼 여력이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든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이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그것마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수밖에 없다.

여름방학 동안 6-12세 어린이의 11%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혼자서 보낸다. 이 수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4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아홉 살 난 아이를 공원에 혼자 놔둘 정도로 위험한 위반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결국, 부모들은 아이에게 TV라도 보면서 집에 있으라고 신신당부하게 된다.

여름은 저소득층 가정에 특히 잔인한 달이다. 값싼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프로그

램은 드물고 자연히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과 배움에서 뒤처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수학 실력이 떨어진다.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은 특히 두 달 동안 독해력도 떨어지는 데, 이는 개학한 뒤에도 좀처럼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격차가 쌓이고 쌓여 5학년이 끝날 때쯤이면 부잣집 아이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 수준 차이는 평균 3년 정도로 벌어진다. 소득 수준에 따른 학습 능력 차이의 절반가량이 여름방학

요. 그나마 식료품 보조금 쿠폰을 받는데 고작 한 달에 달랑 16달러 어치입니다. 있으나 마나죠."

비싸지 않은 프로그램은 그만큼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약도 못 한다. 지난 2월부터 병원 청력 검진센터에서 환자 한자 도우미로 일하는 암브레 오스본 씨는 일자리를 구하자마자 쟁쟁히 7살 난 딸이 여름 캠프부터 찾았다.

"대부분 캠프 비용이 일주일에 225달러 정도였어요. (3면으로 계속)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b> <b>편집국장:유원정</b>
<b>·L.A. Office</b>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b>Main Campus</b>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b>Washington DC Campus</b>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	--



### 주말새벽 또 총기난사...미국사회 충격!

(1면에서 계속)

한편 CNN 방송은 사건 직후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 총기 참사의 특징을 소개하고 앞으로 모방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요약하면, 총기가 너무 흔하고 대중을 겨냥한 총기 난사를 모방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은데다가 용의자들의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도 강해 미국 사회가 총기 사고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 방송이 인용한 자료는 지난해 8월 미국 앨라배마대학 형사행정학과와 부교수인 애덤 랭퍼드가 제110회 미국사회학회(ASA) 연례총회에서 발표한 '미국을 포함한 171개국에서 발생한 대형 총기 사고 비교 보고서'다.

랭퍼드 교수는 대형 총기 사고를 '강도, 인질, 갱단 폭력 등을 제외하고 불특정 일반인을 겨냥해 4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1966년부터 2012년 사이 전 세계에서 터진 이와 같은 사건의 사례를 모았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인구가 세계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전 세

계 대형 총기사건의 31%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균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기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대형 총기 사고 292건 중 90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랭퍼드 교수는 미국 총기 참사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벌어져, 주로 군 관련 시설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른 성향을 띤다고 설명했다.

또 화기 한 정으로 총기 난사를 일삼는 다른 나라 용의자와 달리 미국 용의자들은 최소 1명 이상의 화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올랜드 총기 난사범 마틴도 소총과 권총, 폭발물로 추정되는 수상한 물체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화기를 2정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배경엔 그만큼 총기 친화적인 미국만의 특성이 존재한다.

무기 소지 권리를 규정할 수 없는 2조를 근거로 총기 옹호론자들이 득세하면서 미국 내 총기는 더욱 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기는 2억7천만 정에서 3억1천만 정으로 추산된다. 미국 인구를 3억1천900

만 명이라고 보면 거의 1명당 1개 꼴로 총을 지닌 셈이다.

2012년 콜로라도 오로라 극장 테러,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등 대형 총기 참사가 터질 때마다 총기 구매율이 더욱 높아지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의 인식을 송두리째 뒤흔든 총기 테러를 모방하려는 잠재적 용의자들의 심리도 총기 참사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다.

하버드대학 공공보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1-2014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은 64일에 한 번꼴로 발생해 29년 전 200일에 한 번꼴보다 3배 이상 빈도가 급증했다.

대형 총기 사건이 일종의 전염병처럼 번진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한 사람이 총기 사건을 자행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따라 해 2주 안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다.

모방심리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워사라도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구와 연결된다.

랭퍼드 교수는 "현재 미국 젊은 세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유명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라면서 "총기 사건 용의자들이 접하는 언론과 이들이 범행을 자행할 가능성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킬수록 수많은 언론이 집중 보도를 하므로 단순히 유명해질 기회를 포착하려 든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슬람 성전도 유명해지려는 목적에서 '정당한 명분'을 거론할 수 있다고 봤다.

랭퍼드 교수는 "1972년 뮌헨을 립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살해한 '검은 9월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유명해지려고 한다"면서 "이슬람 급진주의에 영향을 받아 용의자가 올랜드 테러를 자행했다면, 동성애자에 대한 무관용과 이에 따른 대의 실천을 명분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또 악명을 얻고자 대중을 겨냥한 총기 용의자들은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본 다른 용의자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더 '혁신적'인 방법을 범행에 사용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랭퍼드 교수는 예상했다.

이미 벌어진 총기 참사도 경악할 수준이지만 이처럼 오로지 유명해지고 싶은 또 다른 용의자가 더 충격적인 방식의 모방범죄를 벌일 개연성이 커 미국 사회의 고민도 깊다.

### 지구촌 '현대판 노예' 4,580만 명!

(1면에서 계속)

인구 비율로 볼 때 북한 다음으로 2위는 인구의 3.973%가 현대판 노예로 추정되는 우즈베키스탄이었다.

2016 보고서는 이들 나라 중 다수가 서유럽·일본·북미·호주의 시장에 소비자 상품을 생산하는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호주의 광업 거부이자 박애주의자로 WWF 설립자인 앤드루 포레스트는 톰슨로이터스 재단에 "우리는 노예제를 용인하지 않으며 특정 정권 아래서 노예가 있다면 그 정권과 무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부국들에 현대판 노예를 금하는 강력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영국이 지난해 제정한 현대판 노예방지법 같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정부는 북한, 이란, 에리트레아, 적도기니, 홍콩이다. 반면 현대판 노예를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정부는 네덜란드,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순이었다.

포레스트 설립자는 인도가 현대판 노예 수가 가장 많은 나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공로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의 가사, 건설, 농업, 육체노동, 성산업 분야가 여전히 큰 우려라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라고 해서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인구 대비 현대판 노예의 비율은 0.018%로, 각각 57,700명과 6,500명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자인 불법 체류자나 동성애자 등 사회소수자가 강제적으로 성을 착취당하거나 성매매에 동원됐다.

2014년 미국의 주요 8개 도시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남미권 국가의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미국 주요 8개 도시의 유흥가는 멕시코 마약 밀매범들이 운영하는 조직을 이용해 남미권 여성을 싼값으로 사들이고 성산업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의 마약밀매 조직들은 자국 여성들을 납치하는 등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이들을 성산업에 종사시켰다.

포레스트 설립자는 정부와 기업들이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

건 에이즈나 말라리아와 다른 문제다. 우리가 노예를 만들었고 노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다."

이번 GSI 보고서는 국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5개국에서 53개 언어로 약 42,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자들은 일부 국가의 현장 조사를 토대로 다른 나라의 현황을 추정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그와 관련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의 노예 현황은 일부 탈북자와 가진 인터뷰의 내용과 주변 3개 국가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2100만 명이 강제노역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거기엔 다른 형태의 노예는 포함되지 않는다).

### 여름방학은 저소득층 가정에 '잔인' 한 시기(??)

(2면에서 계속)

그러다 시 정부가 후원하는 일주일에 100달러 하는 캠프 모집 공고가 났죠. 한나절도 채 안 돼 정원이 다 찼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표 구하듯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죠."

운 좋게 딸아이를 위해 한 자리를 예약한 오스본 씨. 하지만 이미 일주일에 250달러를 내고 두 살 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오스본 씨 부부는 울며 두 아이의 어린

이집, 캠프 비용으로만 가계 수입의 23%를 쓰게 됐다.

이 정도 지출은 저 소득 아이를 둔 미국 가정에서 흔한 일이다.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보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이 가계 수입의 10%를 넘지 않아야 "적정 교육비 지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상류층 가정은 아니고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여름방학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까?

독일이나 영국 학교는 대개 6주 정도 여름방학을 갖는다. 미국에서도 몇몇 학교는 연중 내내 재량 휴일을 지정하는 대신 방학을 짧게 하기도 한다. 길고 긴 방학 동안 책을 놓아버린 학생들이 방학 후 다시 어렵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문제는 좀 덜하지만, 돌봐줄 사람 없는 집에 혼자 방치되는 아이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 단지 그 기간이 여름 내내 계속되느냐 불규칙적으로 보름에 하루 이틀씩 찾아오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결국은 일하는 학부모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와 정부 책임이다. 긴 방학을 탓할 일이 아니다. 연방정부, 주 정부, 교육청, 민간기업의 지원, 후원을 다 합쳐도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부담할 수 있는 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열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양육비 지원이나 육아 관련 세제 혜택처럼 혜택을 받아야 한다.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 설교준비(하)

목회자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소통과 변화를 이끄는 설교

현대설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눈높이 맞추기와 소통이다. 설교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한다. 문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수준, 학벌, 직업, 성별, 취미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소통의 중요성이 있다.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이해하고 감동적인 삶을 결단하게 하는 설교가 되려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교가 허공을 맴돈다든지 부메랑처럼 설교자 자신에게로 되돌아 온다면 그날 설교는 무의미해지고 만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누구인가. 듣는 사람들은 설교와 설교자의 삶과 인격을 대비한다. 자신의 설교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설교는 잘한다. 말은 잘한다. 그러나 설교자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전해질수록 설교의 영향력은 감소된다. 평소 목회자가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록 그가 전하는 설교의 기대치는 높아진다.

2천석 공간에 5백 명이 모이면 텅 빈 좌석이 된다. 1천석 공간에 3천 명이 모이면 풍성함이 차고 넘친다. 무조건 큰 건물에 여유로운 좌석이 좋은 것은 아니다. 설교 환경은 안정되고 가득할수록 좋다.

모든 교회는 음향기기를 도입하고 설교자의 육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런데 앞좌석은 잘 들리고 옆 좌석이나 뒷좌석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날 설교는 실패작이 되기 쉽다. 음향기기를 점검하고 어느 좌석에 있더라도 그날의 설교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음향시설을 갖춘 교회들을 둘러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주교는 예전 중심이어서 메시지 전달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도, 설교, 광고 등 전달 매체를 통해서 한다.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는 설교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에 소통을 이루려면 대화와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대설교에서 일방통행은 감동을 주기가 어렵다.

필자는 그동안 작중하고 선포한 설교 노트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모두 260여 권이 된다. 설교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만들고 전해야 한다. 신학은 쉬운 사건을 어렵게 만들고, 풀고, 학문화 하지만 설교는 어려운 사건이나 문제를 쉽게 풀어서 전해야 한다. 그것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사건을 인간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아? 무슨 뜻이야?' 라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설교는 현대목회에서 집단 상담과 치유의 몫을 담당한다. 상담은 대부분 일대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대형교회의 경우 개별상담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고 해답이 선포된다. 그리고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운동선수나 결전의 날을 위해, 음악가는 연주회를 위해 그리고 미술가는 전시회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 준비한다. 설교자는 못 영혼을 위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한다. 그리고 그 한 편의 설교 때문에 회개, 감격, 감동, 결단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고 그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영혼을 깨우는 것은 내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가 그랬고,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끈 선배들의 설교가 그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모든 설교자는 그날 그 설교를 통해 자신이 두드러지고 드러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운행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 설교원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iamcspark@hanmail.net

##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단 9:24)

### 미주 목회자 및 사역자를 위한

# 특별 성경세미나

일시: 6월 30일(목)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한미장로교회 (담임 이운영목사)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솔로몬대학교와 임마누엘선교교회 주관으로 능력의 종 라흐채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회비 무료, 점심을 제공하오니 선착순 100명으로 초청합니다. 부디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에 걸쳐 로마서 8장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초청강사: 라흐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자



#### 강사이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미국테네코 석유회사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
- 현 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솔로몬대학교 총장

연락처 (323)708-9191 (c)  
(213)380-7755 (o)  
(213)381-7755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P.O.Box 610179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주관: 솔로몬대학교, 임마누엘선교교회  
후원: 우리복음방송 AM1230, 국민일보, 크리스천비전신문, 기독교일보, CHTV1888, 크리스천헤럴드, 미주크리스천신문





목회서신

한국 교회와 가정의 위기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어느 동물원에 아홉 살 난 백곰이 병들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25,000불을 주고 동물심리학자를 고용했습니다. 동물심리학자가 우리 안에 들어갔습니...

을 해주고 쓰다듬어줍니다. 그러다가 심리학자가 가만히 있으니가 이번에는 곰이 가서 숨었습니다. 숨은 곰을 심리학자가 찾아냈습니...

“폐쇄된 환경과 무관심이 일으킨 권태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물원에 와서 곰을 구경만 했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구경과 관심은 다른 것입니다.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안만 돌다보니 권태증이 나고 살맛이 없어지고 밥맛도 없...

남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살맛나는 가정되게 하시고 직장도 살맛나는 직장으로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14:27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행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하며 옥문이 열리고 차고 개 풀이 나오니 간수장의 가족이 회개하고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

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18:20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오시면 빌립보의 감옥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체의 옥문이 열리고 고통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언제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만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초/장

김광삼 목사 (동문교회)



이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대단한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현상과 실제가 다른 사람들이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현상과 내용이 다르다. 그런 것 같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같으나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남들이 모르는 신령한 기쁨이 있다.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도와주며 산다. 10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래서 그들은 법사에 만족한다. 행복감에 넘쳐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해 보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만족한 삶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을 느끼는데 있다. 불행도 마찬가지다. 결핍하기 때문에 오거나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결핍하다고 하는 불만, 불평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재산이 부족해도 만족할 줄 알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인간은 가지면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니, 조금 부족할 때 오히려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좀 부족한 외모가 더 행복하다. 완전한 외모는 질투의 대상이 된다. 완전한 외모를 추구하여 성형 수술하다가 더 망가진다. 부족한 외모에 자족하면 행복하다. 명예도 그렇다. 100%로 알아주는 명예보다는 어느 정도만 알아주는 명예에 행복이 있다. 오히려 나의 나뉠보다도 더 크게 알아주면 부담스러운 것이다. 힘도 그렇다. 겨루어...

한 사람 이길 정도이면 족한 것이다. 1당 10명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조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적당한 인기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인기가 너무 올라가면 위험한 것이다. 절반 정도의 인기, 부족한 듯 한 외모, 절반 정도의 말솜씨, 절반 정도의 건강, 절반 정도의 교회, 좀 모자란 듯 한 것에 매력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건강,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 완전한 교회 완전한 음식, 완전한 설교, 완전, 완전한 찾다가 여기에 함정이 있다. 완전한 신앙을 찾다가 이단에 빠진다. 좀 모자란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볼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세계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행복과 만족과 감사를 추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래의 소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도의 행복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원지향적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것이다. 옛날 어느 목사가 쓴 작자 미상의 시가 있다. “나의 자랑, 나의 삶의 잔” 웃을 잘 임었다고 하여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요/남루를 걸었다하여 그것이 또 나를 부끄럽게 못하느냐. 남이 나를 칭찬하여 흥이 날것 없고/남이 나를 욕하다하여 그것이 나를 분하게 못하느냐/다만, 주님 계시어 만사가 은혜요 기쁨이로다. 주님 안 계시면 백사가 저주요 슬픔일 것이니/나의 생활의 맛이 오직 주님께만 있도다. 오 나의 생의 맛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만 계시 주옵소서. 고생스럽거나, 평안하거나 주님만 계시 주옵소서/살거나, 죽거나 주님만 계시 주옵소서/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생명이 있겠나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고린도후서 6장 8-10절)

1.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모습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있는 것 같으나 없다. 된 것 같으나 된 것이 없다. 아는 것 같으나 아는 것이 없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인격자인줄 알았는데 너무도 아닌 사람이 있다. 행복한 것 같으나 불행하다. 마치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암에 걸려 있는 줄도 몰랐다. 남들이 볼 때 부럽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복이 없고 불행한 사람이 많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없는 자...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만족한 삶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을 느끼는데 있다. 불행도 마찬가지다. 결핍하기 때문에 오거나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결핍하다고 하는 불만, 불평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재산이 부족해도 만족할 줄 알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인간은 가지면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니, 조금 부족할 때 오히려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좀 부족한 외모가 더 행복하다. 완전한 외모는 질투의 대상이 된다. 완전한 외모를 추구하여 성형 수술하다가 더 망가진다. 부족한 외모에 자족하면 행복하다. 명예도 그렇다. 100%로 알아주는 명예보다는 어느 정도만 알아주는 명예에 행복이 있다. 오히려 나의 나뉠보다도 더 크게 알아주면 부담스러운 것이다. 힘도 그렇다. 겨루어...

비결을 터득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지혜이다. 그렇다. 부족한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이다. 성도의 행복이란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다. 본문 10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다 는 말이다. 모든 것을 정말 가져서가 아니다. 현재 만족감에 넘쳐 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의 현실적인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은 남들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있다. 새로운 가치관과 내적, 영적인 존재로서의 풍요함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해할 수 없다. 주 안에서 풍요의식,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 그래서 “지금 이대회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고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자이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행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해보니 참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福)된 자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요,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세상으로 더불어 웃는 생활보다 주님으로 더불어 우는 생활이/그 눈물이 오히려 맛이 있나이다. 세상으로 더불어 잘 먹는 것보다/주님과 함께 있어 굶고 주님이 오히려 저에게 복이 되옵고 세상과 친하여 비단 옷에 싸여 사는 것보다/주님과 친하여 배운과 한 웃을 입어/오히려 이것이 영광이로 소이다. 오 주여!/당신만이 나의 구주시오니 주 외에 달리 무엇을 구하오리이까? 주님 한 분을 얻어 나는 모든 것을 얻었소오니/주님은 곧 나의 총재신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로 소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활의 잔이 주님 앞에 그대로 열납되기를 원하나이...

(9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2016년 5월 졸업식

- 1. 졸업식(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6년 5월 7일(토) 오전 9시
장소: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내)
2. 졸업 논문 발표
일시: 2016년 5월 5일(목) 오전 9시
장소: William Male Center(신학교 건물)
3. 총장주관 만찬(President's Luncheon)
일시: 2016년 5월 6일(금) 12:00-1:30 pm (졸업식 리허설 후)
장소: Westminster Hall(웨스트 민스터 홀)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작년 여름에 대전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회복 컨퍼런스가 한국의 대전 집시대에 있었다. 당시 메르스의 영향으로 전국이 어수선하던 때여서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모였다. 대부분의 예정되었던 수련회들이 많이 취소되던 때라, 강행하는 데에 따른 부담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메르스가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다. 컨퍼런스 시작 즈음에, 국무총리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나올 만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다.

(lone wolf)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자기만의 생각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공공에 드러나지 않던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기의 혐오 인식에 부합하는 사례들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면서 편견을 강화했고 그것이 특정범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계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더욱 더 인간답게 변화 성숙으로 나아가는 결과가 아닌, 당초의 이상과 거리가 먼 개인 인격과 영혼의 파괴, 더 나아가 공동체의 유익을 파괴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을 본적이 있다. 현대인의 특징은 "목이 마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탄다"는 사실이다. 옛날보다 훨씬 풍요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늘 목말라 하며 각양각색 크고 작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간다. 가장 심각한 갈등은 돈과 이성과 권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갈등이 뿌리이다. 세상 속에 파묻히면 파묻힐수록, 정반대로 피하면 피할수록 영적 갈등은 더 심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전3:11). 그래서 참된 신자에게는 영적인 기갈을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마치 가뭄에 소금물을 마시듯, 그 갈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영적전투의 본질적인 회복은 무엇인가?

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사자처럼 필박과 고난으로, 어떤 때는 유혹과 쾌락으로, 어떤 때는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어떤 때는 교만과 시기케 함으로... 신자의 삶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영혼의 갈등이 해소 가 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영혼은 너무나 빈곤하기 그지없어서, 작은 카드 종이 하나에 나의 운명을 맡기려는 나약함으로 떨어져버린다. 아니면, 아무런 절제와 변별력도 없이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문명의 작은 도구 나의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영적전투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혼의 빈곤과 피폐함**  
한국의 그러한 전국적인 분위기 탓인지, 대전이라는 지역에 제한된 일일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삶의 상황가운데서 여유로움보다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가상공간에서 끊임없는 학습**  
인터넷 중독의 실제적인 문제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전 한국에서 전쟁 게임에 중독된 학생이 게임을 하던 중 집밖으로 나와 칼로 사람을 해친 후에, 경찰이 집에서 체포하

전후방 없는 영적전투

의식하고 다루어야 한다  
악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받지 않을 때 사람들은 대개 이를 무시하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부흥 강사님이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간혹 설교 중에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시면서 순종할 때 일어난 일을 간증하시는데 저에게는 매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요?  
-LA에서 김 집사

**A:**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신구약 66권 즉 성경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편지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때 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십니다. 로고스(Logos)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Rhema)는 로고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 로고스가 내게 레마가 될 때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 중에, 때로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내 가슴 속에 불을 지르고 레마로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말씀을

**성경말씀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 음성...세미한 음성은 분별력 필요**

주기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매일 3장, 주일에 5장, 즉 매3주5만 하면 일년에 한번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읽기와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섬기고 심일조를 드리며 생활하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교회가 금식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선교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한 교회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늘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상담을 통해 성령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음성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은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늘 기도도 깊이 교제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감이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은 과거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때에 환상으로 말씀하셨고 빌립 집사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하고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경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말해도 안되며, 잘 분별하는 영적인 센스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영적전투에서 승리하는 관점**  
- 사막광야 같은 빈들과 달콤한 유혹의 세대 -

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긍정적이지 못한 긴장감은 또 다른 영적인 문제를 도출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시내 전도를 하기위해 대전 시내를 나갔는데, 지하상가의 수많은 곳에서 '타로'라는 좌우에 늘어진 점집이 있는데, 그곳에 젊은 애들이 줄을 서듯 붐비더라는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보면, 최신 문명기에 정신이 몰두된 애들이, 동시에 점을 친다는 것이...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상할 것도 없음을 보게 된다. 그 어떤 최신 문명기기를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영혼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렇게.. 그렇게.. 카드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운명을 두고 싶어 하는 약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고 보니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태연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더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 단순히 배우고 익히고 듣는 후천적 학습을 넘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공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학습되어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 학습속도가 더 빠르게 비해 부모세대들은 허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인생활의 많은 고생을 뒤로 하고 인내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가상세계에 빠져버린 자녀들을 보면서 마치 밭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허무한 심정임을 토로하게 된다.

오늘날 실제 전투의 모형은 전후방이 없다는 것이다.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이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특별히,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기계문명을 통해서 교묘히 침입해 들어오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죄악의 문제점은 너무나 자명하다. 더불어 직분과 신앙의 연륜도 구별이 없이 처량하게 무너져서 목회자의 범죄 현상도 눈에 띄게 나타난다.

다름 아닌, 4:18-19절의 "저희 총령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령에서 떠나 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설명하는 영적싸움의 실제 현상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운데 살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있는데,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주를 아는 순간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감각해지고, 원수 되었던 어둠의 세력과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마침내 기갈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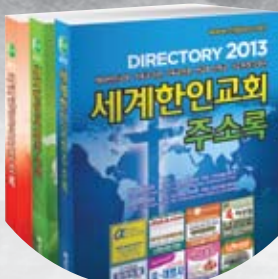
살아가는데, 점점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비집고 들어온 뒤에야 깨닫게 되는데 이미 늦었을 때가 많다. 무엇보다 분명히 존재하는 힘인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의식해야 한다.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만들고 거짓에 대한 개념자체를 잊어버린 채, 거짓의 아버 사단의 조종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거짓의 실체는 사단이다. C S 루이스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나쁜 길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좋은 내리막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길인 들 뒤편에는가? 목적지가 지옥 가는 길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가뻐이 보아서는 안된다. 한순간에 거짓이 찾아오고 거짓에 싸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의식하면서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드릴라의 유혹에 잠든 동안 삼손의 머리칼은 잘려나가고, 영적인 힘들이 쏙 빠져나갔다. 그리고 눈이 뻘뻘하고 몸이 묽은 상태에서 저들이 방심상태 저들을 섬기는 이방인들 앞에서 춤까지 추는 온갖 수모와 치욕을 맛보게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을 그의 삶도 믿음의 여정이었다고 고백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결론은 나실인으로서의 안타까운 일임이 분명하다. 의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함으로 사단의 놀임감이 된 것이다.

너무나 빈약한 영혼  
이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의 약점  
(9면으로 계속)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7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7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6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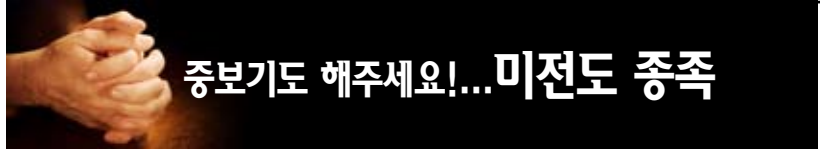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3,000.00
		표지내면(2면, 3면) Back 면 Back 면 내면 Inside	\$3,500.00 \$2,000.00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7.7cm × 11.7cm	\$350.00
	전면 1/8	15.5 × 2.8cm 7.7cm × 5.8cm	\$250.00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방글라데시의 마기(모그, MAGH)



수 백년 전에 가장 무서운 해적들과 항해자들이 뱅골 만에서 해변가 그리고 현재 방글라데시에 속해 있는 강을 따라 있는 마을을 약탈했다. 그들이 마그들(maghs) 혹은 해적들이라고 불리었다. 이것이 지속되어서 원래 버마의 아라칸(Arakan region) 지방에서 기원한 이 부족의 대중

적인 이름이 됐다. 오늘날 이들은 치타공 산지와 남동 방글라데시에 거주한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마그(Magh)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하고 대신 버마인을 의미하는 마르마스(Marmas)로 불리길 좋아한다. 이들은 타이에서 기원하며 이들의 조상들이 중국에서 쫓겨난 후 아라칸 지역의 길로 방글라데시의 산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티벳-버마계 언어인 아라칸어(Arakanese)를 사용하고 버마를 그들 문화생활의 중심으로 여긴다.

방글라데시는 1947년,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에서 무슬림이 떨어져 나와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을 형성할 때 시작된 신생국이다. 1971년에 내부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돼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했다.

삶의 모습

오래전에 바다를 떠난 마그족은 현재 계곡에 거주하는 농부들이다. 더 센 세력에 의해 평야에서 쫓겨나서 산지로 들어온 후 이들은 화전농법(slash and burn)을 채택했다. 마그족 사회에서 농지는 공동소유다. 한해 사용한 후 그 토지는 땅의 회복을 위해 충분한 시간 동안 놀려야 한다. 그 기간 이후에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다. 어느 개인, 가족 혹은 혈족도

토지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농사와 다른 활동들은 가족들을 공동체로 그리고 공동체를 가족들에게로 연결시켜준다. 북부 치타공 산지의 많은 사람들이 뱅갈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반해 마그족들은 버마인들의 문화에 따라 쓰고 입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 결혼은 그 가문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마그족 마을은 강둑을 따라 지어진 10에서 50여 채의 집들로 구성된다. 그 집들은 일반적으로 대나무 단칸을 만들어진 빈약한 구조다. 종종 마을의 길 끝에 위치한 지붕이 있는 집은 남자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의 사업을 토론하는 공동의 공간의 역할을 한다.

신앙

비록 몇 개의 종교가 마그족 가운데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종교는 불교와 정령숭배(인간이 아닌 물체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신앙)가 혼합된 것이다. 불교의 원리는 인간이 개별적인 존재의 순환(윤회)으로 들어가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영혼이 부여된다고 주장한다. 헌신된 불교신자는 선행을 쌓음으로 인해 그의 목표인 열반-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정령숭배적으로 논, 산림, 호수, 강 혹은 다른 장소들을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지역의 신들, 예를 들어 집신, 마을신, 지방신들을 숭배하고 달래는 행위를 한다. 사고, 불행, 질병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종교의식 및 음식제공, 헌화 등을

통해 그 영들을 대접하고 달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남자 혹은 여자 무당들이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미래를 알기 위해 그 영들과 대화하기를 시도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마그족은 치타공 산지에 거주하는 다른 부족들과 함께 벵갈인 정부로부터 그리고 부족의 영토로 이동해 들어온 새로운 정착민들로부터 억압을 받았다. 방글라데시의 경제적인 궁핍과 토지의 부족의 결과로 많은 마그족들은 대규모 축출되거나 고통당하고 학살됐다. 또한 헌신적인 정령숭배적인 불교적 전통은 과거에 그 부족민들로 하여금 복음에 비수용적 이도록 만들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세계선교협 총회 한국서 첫 개최

'세계선교협의회(CWM) 총회'가 오는 18-23일 제주에서 '자유: 행동하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4년여 한 번씩 열리는 CWM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회를 주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의 이성희 부총회장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메이필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가 2만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성장하기까지 CWM은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했다"며 "한국교회 성장이 정체된 이 시점에 CWM 총회의 한국 개최를 통해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총회 준비를 위해 한국에 온 CWM회장 파멜라 탕커슬리 목사, 총무 폴린 코원 목사 등이 함께했다. 총회에는 40개국에서 250여명이 참석해 세계 선교의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하트포드 신학교 총장인 하이다 핫셀 목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이스라엘의 미트리 라켄 목사, 남아공의 부야니 벨렐 교수가 세부주제 연설자로 나선다. 미국 열렘종교학교 교수로 있는 김지선 목사도 세부주제 연설을 맡았다.

CWM은 1840년 리빙스턴(1813-1873)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파송하고,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로버트 제메인 토머스(1840-1866)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한 선교단체다. 1795년 '런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지만 1975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서구 교회가 식민지국가에 대해 제국주의적 선교방식을 취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 전 세계 31개 연합교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1989년에 가입했다.

북한 위에 이 나라, '산지옥' 에리트레아

유엔이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에리트레아 국민들의 참상을 고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엔인권조사위원회가 8일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 에리트레아를 '아프리카의 북한(the North Korea of Africa)'이라고 표현했다. 위원회는 1993년부터 23년간 집권하고 있는 독재자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의 폭정 때문에 30만-40만명이 강제 징집, 투옥,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리트레아에선 청소년 때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무기한 복무하거나 공개적인 곳에서 정부를 비판했다가 투옥되는 일이 잦다. 감금된 사람은 일상적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국경을 넘어 탈출하다 적발되면 총살형에 처해졌다. 한 난민은 "계속 두들겨 맞았고 더러운 물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을 당했다"며 "고환을 맞아 기절했는데 나중에 고환이 아예 사라졌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2014년 6월부터 833명의 에리트레아 난민을 인터뷰했고 4만5000여건의 진술서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에리트레아에는 독립된 사법부와 입법부가 없고 민주적 감시기구도 없다. 지난해 국제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I)가 꼽은 세계에서 가장 언론통제가 심한 나라다. 2위는 북한이다. 마이크 스미스 위원장은 "감시가 불가능한 시스템 때문에 범치 공백이 생겨 25년간 반인륜적인 범죄가 횡행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입국도 거의 불가능해 실상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웠다.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 유럽행 보트에 올랐다. 인구 680만명 가운데 지난해 유럽으로 망명을 시도한 사람만 4만7000명이 넘는다. 1993년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에리트레아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14년 기준 680달러인 세계 최빈국이다. 위원회는 에리트레아의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알릴 계획이다. 또 외국인 여행금지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촉구했다.

반기문 '사우디아라비아 어린이인권탄압 명단 삭제' 시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아동인권 침해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연합군을 뺐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엔기금 지원 철회 압력에 굴복한 때문이라고 시인했다. 이는 인권문제, 특히 어린이 인권 문제를 돈 문제와 결부시킨 것이어서 국제적인 비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일은 향후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반 총장은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우디 등을 아동인권 탄압 명단에서 뺐 것은 유엔기금 철회 압력 때문"이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한테 온 압력대로라면 향후 수백만 명의 다른 아이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또 "더 큰 선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그러면서 "회원국이 유엔에 그런 식의 견디기 어려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유엔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 회견에 대해 압둘라 무알리미 유엔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우리는 유엔을 협박하지도 않았고, 기금 얘기도 안 꺼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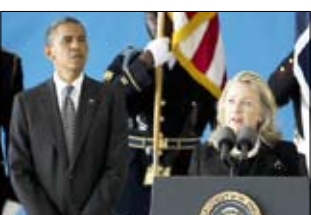
앞서 유엔은 지난 2일 발간한 '어린이와 분쟁 연차 보고서'에서 "지난해 예멘 내전으로 숨진 어린이 사상자 2000여명의 60%는 사우디 주도의 아랍 연합군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사우디가 반발하자 반 총장은 지난 6일 사우디를 명단에서 뺐다. 유엔 측은 "사실 여부를 더 조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단 삭제 이후 국제 인권단체들은 반 총장의 행태가 유엔의 위상을 깎아내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제앰네스티 등 20개 인권 단체들은 8일 사우디를 다시 명단에 올리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반 총장 앞으로 보냈다.

한편 반 총장은 한국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무총장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총장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힐러리 지지' 선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클린턴 전 장관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에서 "클린턴 전 장관보다 대통령 자리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그녀의 편이다. 열정을 갖고 어서 나가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8년 전 대선 경선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선언'은 이날 오전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직후 나왔다.

경쟁자인 샌더스 의원의 경선 완주 선언과 도널드 트럼프의 네거티브 공세 등 안팎의 협공에 시달렸던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 5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선언을 끌어냄으로써 큰 '우군'을 얻게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오는 15일 대표적 경합주로 꼽히는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인 위스콘신주로 출격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지원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상에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사실상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그래서 나는 힐러리가 그것을 매우 잘할 것임을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용기와 열정,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가슴이 있다"며 "그녀와 20차례 이상 토론을 했던 사람으로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샌더스 의원에 대해서도 "경제 불평등과 과도한 금권정치 등의 이슈에 조명을 비쳤으며, 젊은이들을 정치적 과정으로 끌어들이었다"며 치켜세웠다. 또 "그런 메시지를 끌어안는 것은 11월 대선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민주당과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과 샌더스 의원은 경선에서는 라이벌이었지만 모두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며, 우리 모두가 믿는 미국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 지붕 아래 힐러리-샌더스 캠프가 들어오도록 하는 당의 단합을 위한 '키 플레이어'(key player)"라며 그의 지지선언으로 당이 급속히 단합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선언'에 대해 클린턴 전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세상 전부를 얻은 셈"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내가 어려움에 걸쳐 격렬한 경쟁자에서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10년 내 인간 유전체 합성 목표"

생명의 비밀이 풀리는 길. 아니면 신에 도전하는 것일까.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체를 합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일 뉴욕대 랑곤의료센터의 제프 비커 등 과학자 25명이 최근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를 통해 10년 내 세로 안 인간 유전체 합성을 목표로 하는 '인간게놈 프로젝트(HGP)-제조'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뉴욕 등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학계와 정-체계 인사 등 150여 명이 비밀리에 이 같은 논의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윤리적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결국 사이언스를 통해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2000년대 초반 HGP에 따라 인간이 DNA를 구성하는 30억개 염기쌍 배열을 해독(reading)하는 데 성공한 이후 10여년 만에 인간이 직접 게놈 배열을 만들어내는(write) 것이다. 발표문에서 과학자들은 "환자들에게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 생명공학 부문에서 '잠재적으로 혁명적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억 달러 규모의 국제 컨소시엄 펀드를 구성해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총비용은 3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과학자들은 윤리적, 법적 틀 안에서 이번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병 치료뿐 아니라 생명 연장, 결국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억 달러 규모의 국제 컨소시엄 펀드를 구성해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총비용은 3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과학자들은 윤리적, 법적 틀 안에서 이번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병 치료뿐 아니라 생명 연장, 결국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억 달러 규모의 국제 컨소시엄 펀드를 구성해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총비용은 3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과학자들은 윤리적, 법적 틀 안에서 이번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병 치료뿐 아니라 생명 연장, 결국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내외 선교단체 라마단 맞춰 '30일 기도' 돌입

한국내외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30일기도운동·포스터)에 돌입했다. 6일부터 시작된 이슬람 금식월 '라마단'에 맞



춰 17억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다. 라마단은 이슬람교도의 5대 의무 사항 중 하나로, 모든 무슬림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해야 한다. 올해는 다음 달 5일까지다.

기도제목은 매일 홈페이지(30prayer.org)에 제공된다. 전 세계 이슬람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 정보와 기도제목도 알려준다. 국제예수전도단(YWAM)은 7일 "하나님이 무슬림 세계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간구하자"며 "기도제목은 교회 모임이나 가정예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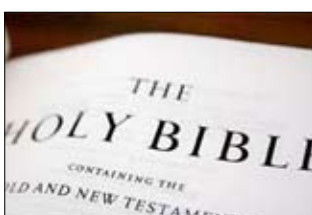
30일기도운동은 선교단체와 지역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프론티어선교교회(대표 이현수 선교사)는 '라마단 특별포럼'을 마친 6월 한 달간 기도회와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 송파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도 릴레이 금식기도와 함께 8일부터 매주 수요일 배에서 '이슬람 특강'을 진행한다.

30일기도운동은 1992년 4월, YWAM 지도자들이 중동에 모여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했다. 매년 거듭하는 기도를 통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영적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수많은 무슬림들이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보고가 있으며, 2000년 이후에만 800만명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전해진다.

YWAM 관계자는 "이슬람 세계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다. 내전과 테러의 최대 피해자는 무슬림들"이라며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자"고 말했다.

미 초등학교, 성경구절 나눠준 학생·부모 제재

캘리포니아 팜데일(Palmdale)의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7세 소년이 학교 점심 시간에 친구들에게 성경구절을 나눠 주다가 제재를 당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또한 지역 보안관이 이 소년의 집에까지 찾아와 부모에게 "교내에서 성경구절을 나눠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공격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가족들은 보수적인 법률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단체는 관할 교육구에 데저트르즈초등학교(Desert Rose Elementary School)에서 발생한 일을 알렸다.

학부형인 크리스티나 자발라(Christina Zavala)는 1학년인 아들의 도시락 위에 격려하는 글과 성경구절을 넣어 주었고, 아들은 점심시간에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학생은 지난 1월부터 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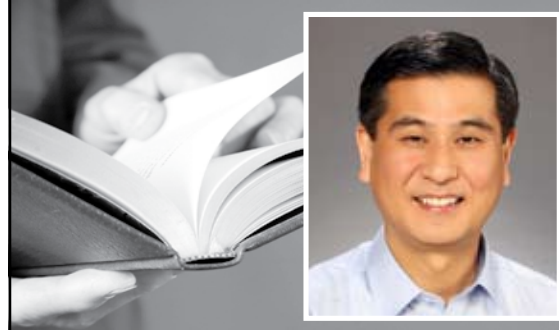
이 소년은 친구들에게 성경구절을 소리 내서 읽어 주었고,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간절히 기대했다. 소년 주변에 점점 많은 학생들이 모이면서, 이를 복사해서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성경구절 나눠주는 것을 금지했고, 대신 "수업이 끝난 후 교문 앞에서 나눠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발라는 지난 4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 측에 편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는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소년을 질책하며, "종교에 대해 말하거나 어머니가 써 준 글귀를 나누지 말라"고 했다. 이에 소년은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이 소년의 학부모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 교문 앞에서 성경구절을 나눠줬고, 1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였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멜라니 파글리아로 교장은 교문 앞에 있던 소년의 아버지에게 와서 "학교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에서 이를 나눠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이들은 그 지시에도 따랐다. 하지만 그날 밤, LA 보안관 대리가 소년의 가정을 방문해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성경구절을 나눠주는 행동을 그만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리버티카운슬은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팜데일 교육구도 "우리 교육구의 데저트르즈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종교적인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 교회역사를 보면 성령이 보인다 (60)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신앙의 자유와 경건 (1)

신앙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각 개인에게 자신의 의지와 양심에 따라 신앙을 선택하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이다. 외부의 강압적이며 물리적인 힘으로 신앙심을 유발시킬 수 없다. 신앙을 억압하거나 강요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경건한 모습을 지니기 위해 신앙의 본분에 힘써야 한다.

질문: 주후 313년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신앙의 자유는 각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1) 교회 역사를 보면...

#### ■ 성령이 이끄는 삶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결코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오순절의 역사는 성도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공동체였다. 무엇보다 절망과 두려움에 숨어 지내던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였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성도들도 성령에 충만하여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끌림을 받는 영적 공동체였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성도들의 삶

에 역사하였다. 성령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성도의 신분을 지닌 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

는 것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받은 복음을 전파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성숙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성령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 신앙의 자유 도래는 참성도와 거짓성도 구별도구(핍박과 환란) 상실 초대 성도가 바른 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성령 충만 뿐

는 것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받은 복음을 전파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성숙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성령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장악한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던 기독교인들을 항상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점점 커져가는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세력을 전복하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더욱이 주로 사회의 하층 계급에 속하였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 섬길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 크게 오해받기도 하였다. 그 당시 힘을 지니고 있던 귀족 사회에 속한 자들은 성도들의 체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황제들은 강력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우고 대대적으로 실행하였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단해야 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대로 수용하여야

는 것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받은 복음을 전파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성숙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성령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 ■ 고난과 결단

초대교회가 경험한 고난은 실제적인 것이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린 청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였다. 성도들은 그가 흘린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으라는 복음을 전해 듣고 이를 믿은 자들이었다. 우리는 독특한 기독교 신앙을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초창기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 성도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가족중심의 사회로

부터 배척을 받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대로 행하는 성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왔다. 특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예배하는 것과, 성찬식,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에게 일그러진 상상력을 자극하고 남았다.

## 신앙의 자유 도래는 참성도와 거짓성도 구별도구(핍박과 환란) 상실 초대 성도가 바른 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성령 충만 뿐

는 것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받은 복음을 전파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성숙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성령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장악한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던 기독교인들을 항상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점점 커져가는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세력을 전복하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더욱이 주로 사회의 하층 계급에 속하였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 섬길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 크게 오해받기도 하였다. 그 당시 힘을 지니고 있던 귀족 사회에 속한 자들은 성도들의 체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황제들은 강력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우고 대대적으로 실행하였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단해야 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대로 수용하여야

했다.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교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는 자들을 향해 끝까지 뜻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결과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 개인들의 신앙적 결단이었다. 고난은 경건의 삶과 직결되었다. 거룩한 삶의 정경이 새롭게 내려졌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방편이 되었다.

성화는 성령의 일이다. 다시 말해,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

속에서 경건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시대가 사라진 것이다. 신앙의 자유의 도래는 핍박과 환란은 참성도와 거짓 성도를 가려낸 도구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신앙의 자유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게 하였다.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다. 교회가 넘쳐났다. 기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됨으로서 사회에서 얻는 이익이 많아졌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림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을 서서히 사라지게 하였다. 신앙의 자유는 더욱 편안한 삶과 누리는 삶에 대한 잘못된 눈을 뜨게 한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단맛을 보게 되었다.

2) 성령이 보인다 - 민수기 14:20-25; 예레미야 21:8; 마태복음 7:13-14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분명하다. 생명의 길, 좁은 길, 그리고 진리의 길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 자연스러운 선택은 사망의 길, 넓은 길, 그리고 비진리의 길이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다.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본능을 의지하게 된다.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커지고 앞날에 대한 확신이 흐려질수록 방황하게 된다. 성도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도는 스스로 신앙의 길을 개척하는 자들이 아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커다란 과제는 성령충만이란 사실을 명심하자.

covenantcho@yahoo.com

### ■ 신앙의 자유

313년 이후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초대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고난

### ■ 신앙의 자유

313년 이후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초대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고난

# 그게 그런 뜻이었어?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38)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 죽음은 출애굽(exodus)하는 것이다

변화선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눅9:31). 별세라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다. 이종표 목사님은 여기에서 별세라는 말을 따라 '별세 신학'이라

는 것을 주창했다. 그분은 "별세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을 사모해야 한다,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외쳤다. '별세'라는 말은 성경에 딱한 번 나온다(눅9:31). 그러면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하면 될 것

을, 왜 굳이 별세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한 것일까? 구태여 그런 표현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원어로는 'exodus'라고 되어 있다. exodus는 출애굽을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말인가?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모세와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인가? 아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

음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exodu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표현했다. 죽음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당히 상징적인 용어인 exodus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죽음은 무엇인가? exodus이다. 떠나는 것이다. 출애굽하는 것이다. 출애굽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치하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 이 바로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셨다. 벗어나게 하셨다. 자유를 얻게 하셨다.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exodus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exodus에 비

유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은 벗어나는 것이다.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바로가 다스리는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다.

우리도 죽을 때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exodus이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이집트와 같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시 말해 별세를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

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너 우리도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exodu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베드로도 죽음을 exodus로 이해했던 것이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exodus)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벧후1:15).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jinhlee1004@yahoo.com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p>						
<p><b>벤델교회</b>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영): 오전 7:00 주일2부예배(영): 오전 8:15 주일3부예배(영):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택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동명예: 오전 10시, (월) 오전 11시 유치, 유년, 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아, 유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3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p>	<p><b>안다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p><b>알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p>	<p><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v.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 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875, (253)889-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mcc.com</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c.org</p>



## 리더십 코멘터리 (19)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브레이크 없는 Leader

급변하는 현대문명 속에서 무질서한 가치관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궁핍으로 신음하고 있는가? 하늘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생각과 비전을 흔들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들고 비전을 굽주리게 해서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든다. 그것은 그가 타고난 작고 보잘 것 없는 성품을 인내와 끈기로 훈련시키고 담금질하여 하늘이 내린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키워 내기 위함이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리더를 만드는가? 리더의 현재 위치와 나아가갈 방향을 재조명해서 올바른 리더십을 구축하고 능력 있는 리더를 만드는 3가지 요소를 연구해보자.

Research One-리더의 자존감

### 과거 현재 미래 자존감 회복 · 스스로 통제 억제하는 절제력 갖도록 동기부여로 목표지향적 행동하도록 지시 격려 촉진하고 고무시켜야

자기인식(Self Esteem)이 올바른 리더를 만든다.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자기존중은 모든 인간의 문제이지만 특별히 리더가 갖는 정신건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인간의 자존감이 상실된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건강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물론 물질의 부족과 건강의 약함이 하나의 요소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병든 자존감은 사고의 왜곡 때문이다. 그것은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사고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제안

제안 1)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한다.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이다.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좋지 못한 사건의 기억이나 어린 시절의 상처 또는 과거에 지은 특정한 죄로 인해 자기를 부정하고, 우울증, 죄책감, 분노, 수치심, 열등감, 미움으로 인해 번민하고 시달리게 되면 자존감은 병들어 버린다. 과거의 유산인 거짓된 영상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고민하는 리더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교훈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리더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과거의 죄가 다 용서되고 새롭게 되었다고 확신해야 한다.

제안 2)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현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열등감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성경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현대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려면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제안 3)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의 나에 대하여 낙관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존감은 미래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인식은 곧 자존감으로 나타난다.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자존감이 병이 든다. 비록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비전 없는 우상의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12:2)라고 말씀하신다.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는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비전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Research Two-리더의 절제능력

절제(Self Control)가 올바른 리더를 만든다.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화창한 어느 가을날, 한 농부가 토실토실하게 여문 옥수수를 엮어서 앞마당에 있는 나무에 매달았다. 다람쥐 한 마리가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날마다 농부의 눈을 피해 옥수수가 매달려 있는 나무에 올라가 배가 터지도록 옥수수를 먹었다. 열흘이 지난 후에 농부는 나

무 밑에 떨어져 죽어있는 다람쥐를 발견했다. 다람쥐가 나무에서 내려오다가 그동안 너무 먹어서 둔해진 자기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발을 헛디뎠다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다. 먹는 것을 즐기면서 적당한 선에서 자제해야 했는데, 다람쥐는 남이 수고한 것을 공짜로 훔쳐 먹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절제하지 못한 것이다. 나무에서 떨어진 다람쥐의 모습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먹어대 때 "돼지처럼 먹는다"고 말한다. 이 소문을 들은 돼지들이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돼지의 품위를 손상시킨 인간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사실 돼지들은 위에 70-80%가 차게 되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더 먹지를 않는다고 한다. 돼지들이 하나님께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는 말로 고쳐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돼지들의 손을 들어 주셨다.

절제란 스스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격이 없는 것과 같다(잠 25:28). 성이 무너지고 성격이 없다는 것은 무방비상태를 의미한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리더는 무방비 상태 속에서 망하는 것이다.

만일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엑셀레이터(Accelerator)만 있고 브레이크(Brake)가 없는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 수단이라 위험적인 흥기가 되고 만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 그러나 브레이크 장치가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운전자가 신중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멈춰 서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고, 스피드를 즐기면서 가속 페달만을 계속 밟는다면, 나무에서 떨어진 다람쥐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요리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양념을 한다고 하면서 소금을 한 스푼 두 스푼, 설탕을 한 스푼 두 스푼 점점 더 많이 음식에 집어넣는다면 음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이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 리더십의 원리를 실천하는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소원한다.

Research Three-리더의 동기부여 능력

동기부여(Motivation)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올바른 리더이다.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다. 인간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에서 모든 동기가 유발된다.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조직화시키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조직의 리더는 목표 지향적인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자극하고 유발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인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 동기는 인간행동의 주요원인이다. 리더십에서 동기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지지하고 유인하며 격려함으로써 행동을 촉진시키도록 자극하고 고무하는 내적인 상태를 말한다. 당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기를 소원한다.

sondongwon@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회개의 영을 물붓듯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단 삼손 뿐이겠나. 우리 모두도 내 손에 의지할 것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것인 양 재맛대로 휘둘러 버리고 하나님께 덕이 될지 아닐지 생각조차 하지 않지요. 내 것 쟁기고 누리기에 바빠 주위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근시안적인 우리입니다.

도무지 삼손을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오십 보, 백 보 거기가 거기지만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삼손의 이기주의를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분에 넘치게 소유함은 오히려 자신에게 욕이 되네요. 마음을 겸비해 봅시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교회의 번드러한 프로그램은 난무하나 주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목이 마르고 영양실조로 시달립니다. 목자라 자칭하는 사목자들에게 회개의 부흥이 그토록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목양의 불꽃이 지피도록 목자들의 심령을 깨워 주소서! 눈이 밝혀도 정신을 제대로 못차린 어리석은 삼손의 사사로운 길을 버리고 선한 목자의 사명길이 바로 보이는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터주소서!

이리 저리 계속되는 전쟁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굶주린 배를 움켜쥐었지만 영혼 구원의 구령에는 순수했고 대단했었습니다.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수고 덕에 이제는 그 열매를 잘 돌보고 감사히 누리지만 하는데... 탐욕과 불평은 오히려 하늘을 찌르고, 마음은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 분분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도 부르짖으면 아무 말 없이 돌보아주시니 감사하며 이 뻘뻘한 민망함이 앞섭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생각나게 하시니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끝없이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편만한 동성애 문화가 우리가 사는 세대에 코앞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가장 기본 질서를 뿌리 채 흔들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불순종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어 막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고 오는 차세대 아이들 살아갈 막가는 세상을 가슴 치며 슬퍼합니다. 저희 세대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합니다. 어찌 온 세대가, 동성애자들이 이리도 수척스런 죄를 당당하게 떠돌고 사람의 생명을 파괴 목숨보다 못하게 살육하는 극단 이슬람이 이렇게까지 판을 치게 되었는지? 그저 기막히고 영드러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서로 다투듯 온갖 죄가 극성을 띠는 양분된 남북한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가올 징계를 조금이라도 늦추어 주시어 모두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이 죄를 어찌 하오리까! 저희도 깨어 경성치 못해 이 지경에 급속히 악이 성행해 함을 그저 눈물로 회개합니다. 회개에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 모양으로 핍박되어 고통하는 연약한 이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막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되는 아버지 나라 대사로 살게 하소서!  
heenlee55@hanmail.net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b>뉴욕부클링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성경훈련: 화, 토 오전 10:00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 FKG5.ORG</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com</p>	<p><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목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www.nytech.com</p>	<p><b>뉴욕순복음안도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목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85 162 St., East, Meadow, NY 11358 www.nyantech.com</p>	<p><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30 최고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org</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p><b>에벤에셀선교회</b> 담임목사: 최장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목예배: 오전 1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페인어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p>	<p><b>예사랑교회</b> 담임목사: 손환근 주 일 예 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p><b>퀸즈선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목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p>	<p><b>퀸즈안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8:30 NCF영양: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p><b>뱅크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금요(신)예배: 오후 8:30 금요(신)예배: 오후 7:30 www.pccny.org Tel: (804)584-5780, Fax: (8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n Pizar, 25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p><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30 포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1-3141 www.hwaichurch.org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2:00 주목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AÍ-SÃO PAULO-SP-BRASIL</p>	<p><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목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Ó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신)예배: 저녁 9:00 7:14(중)기도회: 아침 7:40 일,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Tel &amp;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정관일 주 일 예 배: 오전 9:3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2:00(영양)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목예배: 오후 8:00 (1, 2, 3, 수석사제님 설교) Tel: (595)25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ón-PARAGUAY</p>	<p><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목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학교: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신)예배: 오후 8:00 Tel: (808)847-5252, Fax: (808)947-5151 www.h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 2016 한인세계선교대회 (KWMC)

## 선언문

한인세계선교협의회 주최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제 8차 대회가 3,000여명의 지구촌 한인 선교현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가주 아주사피사픽 대학교에서 “천국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회를 마치면서 한인 선교현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회 선언문을 채택했다.

#### 선교의 목적(PURPOSE OF MISSION)

-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다.
-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경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는 것이다.

#### 선교의 주제(MISSION LEADERSHIP)

-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명자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 선교환경(MISSION CONTEXT):

-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나 선교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 오늘날의 선교환경은 어느 때보다 사명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의 소명(OUR CALLING)

-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모든 민족교회들과 더불어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책임을 맡은 교회는 메시지에 대한 바른 이해뿐 아니라 메시지가 전파되는 환경을 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 우리의 회개(OUR REPENTANCE)

-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하나님의 뜻 구현보다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를 해온 것을 회개한다.
-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로 물량 위주의 사역을 해온 것을 회개한다.
- 우리는 선교연구와 지도력 개발에 힘쓰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역해온 것을 회개한다.
- 우리는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사역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한 것을 회개한다.

#### 우리의 헌신(OUR COMMITMENT)

- 우리는 자신의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를 지양하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하나님의 뜻 구현을 위하여 사역하기로 헌신한다.
-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자산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기로 헌신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적, 물질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연구와 지도자 개발에 헌신한다.
- 우리는 독자적인 사역을 지양하고 한 몸의 지체인 지구촌 민족교회들과 더불어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추구하기로 헌신한다.

#### 우리의 확신(OUR CONFIDENCE)

- 세계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많은 도전이 있지만 결국 선교의 주체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리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
-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한다. 할렐루야!

2016년 6월 10일

제 8차 한인세계선교협의회 2016년 선교대회  
(The 8th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Mission Conference 2016)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떨어지면 마른 딸감  
살아있는 나무 가지를 칼로 베어 보면 잔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마른 나무는 아무런 잔액도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그저 딸감으로 적격일 따름이다. 비가 많이 온 후에도, 불을 피워 보면 아무리 쫄았다고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활활 타 타버리고 만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지의 나무는 아무리 명명한 날씨에 불을 붙여도 잘 타지를 앓음을 본다.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되신 당신의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오직 의식하며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루스의 빈들과 세겜의 유혹이 있는 세상길  
세상과 그 배후의 영적존재와의 전투를 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머무는 것이 근본적인 삶의 회복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출발이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한다. 야곱이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의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챈 후,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하란의 밭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을 향해 가다 피신 길에 루스 땅을 지나며 잠이 들었다.  
‘루스’라는 지명의 뜻은 ‘길을 잘 못 들다’는 뜻이다. 그만큼 여행자

들이 길을 잃기 쉬운 지형인 곳이다. 이곳에 잠든 야곱의 모습은 길 잃어버리기 쉬운 인생길에,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돌베개 위에 머리를 고인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정형화한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언약을 재확인시켜준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과 서원을 드리게 된다. 길 잃어버리기 쉬운 루스가 하나님의 집-벧엘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금 그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 만난 자의 삶이기보다는, 목적인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거부가 된 이후에 돌아와서는 즉시 벧엘로 올라감이 아니라 눈앞에 보기 좋은 세겜 땅에 거하다가 가족멸절의 위기까지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 다시 루스의 빈들 같은 상황을 세겜에서 맛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벧엘로 올라가려는 말씀을 회박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전부를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다.  
당신의 벧엘이 어디인가? 정한 시간 정한장소의 예배  
루스와 세겜같은 세상의 빈들에서 벧엘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의 루스와 세겜 그리고 벧엘이 어디인

### 토요칼럼

## 내 인생이 짧아



김한맥 선교사

인생(人生)은 참 어렵다. 한 마디로 정의할 수도, 이런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의 수만큼 나름의 사연들이 인생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 해줄 수 없다” 캐롤 버넷의 말이다.  
아파트에서 기르던 5개월 된 강아지를 얻어 시골에 데려갔다. 그동안 어찌 자랐는지 모르나 목에 줄을 채우는 순간부터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를 준 분의 말이였다. 오전 10시쯤 개를 차에 싣고 일을 보기 위해 주차장에 몇 시간을 기다리게 했을 때도 개(강아지?)는 갸~ 하는 소리는 고사하고 일체 반응하지 않았다. 차에서 기다린 다섯 시간 동안의 유일한 변화는 바닥에서 의자 위로 올라갔다는 것뿐이었다.  
오후 6시 경 시골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게 해도 움직이지 않아 안에서 내려야했고 목줄을 당겨도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질질 끌려왔다. 낮이 설고 무서워 그러는 것으로 짐작하여 만져주고 부드럽게 말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시골에 있던 개집을 청소하고

새 담요를 깔아주며 먹을 것을 챙겨줘도 그저 눈만 깜빡였다.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조차 않고 먹 것을 입에 대주도 거부했다. 그러다 목줄이 풀리자 쏘살같이 달아나 낯선 주변을 맴돌 뿐 사람의 가까이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눈치를 보며 사료를 먹고 물도 마셨다. 잡는 것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문을 조금 열어놓고 한 밤을 보냈다. 열려가 되어 문을 열면 나 잡아봐라 하는 듯 밖으로 내뺐다. 아무리 낯설다 해도 먹이를 주는 이에게 꼬리 한 번 흔들지 않고 쫓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불통의 무서움이 느껴졌다.  
밖에 나가 식사를 하고 돌아오다 울타리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잡을까 말까 망설이다 울가미를 가지고 잡아 다시 목에 줄을 채우니 역시 째깍도 하지 않고 무반응을 보인다. 옆에 먹을 것을 주고 물그릇을 놔줘도 일체 반응이 없다. 짐승이지만 그 무반응이 섬찟했다. 여우하고는 살아도 소하고는 못산다는 말이 왜 때로는지 모르겠으나 참으로 이상한(?)한 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

었다.  
그 개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른다. ‘내 견생(犬生)이 짧아!’ 그러든 말든 제 생이라는 데 무언이라 말하겠는가? 성질 급한 사람을 만나 발에 채이거나 몽둥이에 맞아 죽어도 제 생이라면 할 말이 없게 된다.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사고도 그렇다. 공중화장실의 물지마 살인, 등산로에서 물지마 살인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었으며 잘나기던 특별한 인생들의 추락도 내 인생이라고 목청을 높인다면 도전개진이다.  
에덴동산에서 독처하는 아담을 보시고 그를 도울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에게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고 기뻐하던 사람의 모습에는 ‘내 인생’이라는 이기(私己)는 없었다. 요즘도 흔히 ‘내 맘대로’라는 말을 듣기 하지만 이는 이성적인 말이 아니다. 사람이 진정한 사회적인 존재라면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논리는 무인도에 가서나 가능할 것이다.  
‘내 인생이 짧아!’ 생각해볼 것이 참 많은 말이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말하는 천방지축도 있다. 사람은 사람

이라고 주장하는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른다. 숨을 쉬지 않으면 왜 죽는지도 모르며 입으로 먹는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고 에너지가 되는지도 모른다. 세상이 내 손안에 있다고 허세를 떨다가도 몸살감기에 숨처럼 가라앉는 것이 사람이다. 오죽하면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겠나만 풀어놓고 따져보면 사람처럼 무능한 존재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없다는 점이다. 몸은 흠으로 만들어졌고 생명은 하나님의 불어넣으셨다. 죽으면 몸은 썩어 흠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야만 한다. 세계인구 74억 중의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 세상에선 특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특권은 없다. 왕이라는 권세도, 스타라는 명예도, 재벌이라는 부도 다 무용지물일 뿐이다.  
결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 그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 인생’이라며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 인생이 짧아!’ 그렇다. 그 인생이다. 그가 어찌되든 그 인생이다. 다만 그 인생의 책임도 그 자신이 져야만 한다. 영원한 지옥! 역지를 부리다 가까이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곳이다.  
hanmac@cmi153.org

## “은혜로운 분리정책” 대신 “교단관계해소 정책”으로 PCUSA 동부한미노회 제78차 정기노회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허봉기 목사) 제78차 정기노회가 6월 7일 오후 6시 뉴저지 한소방교회(담임 김귀안 목사)에서 열렸다.  
중앙협의회는 그동안 동부한미노회가 교단 관계해소(탈퇴) 지침으로 사용해오던 “은혜로운 분리정책(GDP, Gracious Dismissal Policy)” 대신 “교단관계해소 정책(PDP, Presbyterian Dissolution Policy)”을 제안했다.  
노회장 허봉기 목사는 “교단 관계해소 과정을 놓고 수년에 걸쳐 노회와 교회에 소모적 혼란이 있었다”며, “노회가 과정을 주도하면서 교단 관계해소 과정을 줄이겠다는 것이야 강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 내용 중 부분적 지적이 이어졌으나, 허봉기 노회장이 새로운 “교단관계해소 정책(PDP)”의 취지를 설명하고 결의한 결과 찬성 38명, 반대 14명으로 새로운 교단관계해소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어 실행위원 중심으로 준비된 정책 문구를 손질해 9월 정기노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통과시키기로 했다.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 “은혜로운 분리정책”은 노회에서 PET 그리고 교회에서

SCC를 구성해 교단탈퇴를 진행했으나, 새롭게 제안된 “교단관계해소 정책”은 노회에서 교단관계해소를 위한 ‘행정전권위원회’를 파송해 당회와 과정을 진행한다.  
△교회측에 일임했던 교인 교육은 행정전권위가 전담하며, 필요에 따라 당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전권위 주관으로 공동의 회를 소집하며, 활동교인 과반수가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교단관계해소 찬성자가 80%가 넘을 경우 행정전권위는 노회에 교단관계해소 안건을 제출한다.  
△행정전권위는 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에 대한 목회적인 돌봄과 교회재산에 대한 계획을 노회에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노회는 교단관계해소를 결정하게 된다.  
△이전의 “은혜로운 분리정책”에 따라 교단탈퇴를 진행하는 교회는 계속 이전 정책에 따라 진행하며, 해당 교회가 원할 경우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노회의 영어명칭을 “Eastern Korean Presbytery”에서 “Eastern Korean American Presbytery”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제2회 CABC가 패퍼다인대학에서 열린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성경으로 돌아가자’ ..온 가족 함께 제 2회 CABC 어린이 포함 150명 참석

제2회 CABC(California Bible Conference)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말리부에서 있는 페퍼다인 대학에서 열렸다.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한테평양 영화제를 주관하는 Global Media & IT(GMIT) 주관(대표: 켄 안 선교사)으로 열렸으며 CABC의 목적은 말씀의 파워를 인지하고 참된 제자의 삶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진리를 따라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컨퍼런스는 2박3일 동안 3시간씩 5회의 성경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전했고, 금요일 저녁 기도시간을 통해 영적 회복이 되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요한복음과 그리스도” △김선익 목사(미주 서부장로교회) “레위기와 그리스도” △지영주 목사(시라

큐스한인교회) “사사기와 그리스도”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누가복음과 그리스도”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야고보서& 유다서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다.  
또한 개회설교는 노진준 목사(한길교회)가, 어린이 컨퍼런스 설교는 존여 전도사(LA사랑의 교회), 그리고 폐회설교는 권태산 목사(올림픽장로교회)가 맡았다.  
이번 컨퍼런스는 어린이 컨퍼런스가 동시에 진행돼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었다. 참석자 모두 말씀에 흠뻑 젖어 전 가족이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최측은 내년에는 200-250명(어린이 포함)이 참가하는 컨퍼런스로 준비하게 되며 ‘빛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독립기념일 연휴에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살롱장로교회, KWMC참석 선교사일행 접대

LA에서 개최된 제 8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에 참석했던 선교사 10가정이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를 방문, 교우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미 동부지역 킷넷선교회 후원교회들이 주축이 돼 초청된 선교사일행은 처음 미국을 방문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에 주력했던 선교사들이었다.  
선교사 일행 20명은 살롱장로교회와 고든 콘웰 신학교, SIM, 빌리그래함 라이브러리 등을 방문하고 고든 콘웰 레니역 전임 학생의 특

강과 SIM 브루스 잔슨 대표의 특강을 들었으며, 빌리그래함 전 전도자가 헌신해 이룬 엄청난 구령의 업적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도전 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살롱교회 측은 전했다.  
수요일 저녁에는 살롱장로교회에서 박영성 선교사가 로마서 1장 14-17절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 설교해 큰 은혜를 끼쳤다. 박선교사는 태국에서 17년째 선교하는 GMS(예장합동) 소속 선교사다.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성도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의식으로 사는 자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하면 상관없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행복하고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감사와 만족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기쁨과 행복자로 살게 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신비로운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davidnjeon@yahoo.com



# 동부교계 게시판



## 여수문기독교학교 학생모집

뉴욕주 시라큐스에 위치한 여수문기독교학교(교장 지용주 박사)가 2016년도 가을학기 및 2017년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9-12학년이 되는 크리스천(선교사/목회자 자녀 우선)이며 지원자격은 동 학교의 신앙고백과 교육철학에 동의하는 영주권(시민권)자로 기숙사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며 선교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있는 자로 1차 서류전형(입학지원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 학부모 동의서, 기숙사 생활동의서, 필드워크 동의서 각 1부씩, 추천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사진 3매)과 2차 학생 학부모 면접이 필요하다. 홈페이지 [www.jeshurchristianschool](http://www.jeshurchristianschool)  
▲문의: (315)474-8346

## 뉴저지한인침례교지방회 세미나

뉴저지한인침례교지방회(회장 박근재 목사)가 주관하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공개강좌가 6월 27일(월)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지구촌교회(담임 김주현 목사, 70 Sheridan Ave. Ho-Ho-Kus)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미드웨스턴침신 아시아부 학장 박성진 박사이며 주제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구약의 의미는 존재하는가?' 미드웨스턴침신은 미국남침례교단(SBC) 산하 6대 신학교 중 하나로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교육목회학 박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등 학위과정을 100% 한국어로 제공한다.  
▲문의: (201)647-7766

## 제 24회 '밀알 사랑의 캠프'

미동부 지역 한인 장애인과 가족 및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제 24회 '밀알 사랑의 캠프'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열린다. 성인 강사 서창권 목사(시카고한인교회), 아동은 김은혜 전도사(워싱턴한빛교회)가 초청됐다. 참가비는 대학생 이상 180달러, 5세-12학년은 160달러, 4세 미만은 무료. 4인 이상 가족은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캠프 주회는 워싱턴밀알선교단이며 신청마감은 6월 30일까지.  
▲문의: (301)294-6342

## 영어부 사역자 청빙

PCUSA 교단 소속인 뉴저지 엘리자베스한인교회(담임 소재신 목사)가 중고등부 및 영어목회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pcc.org](http://www.kpcc.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958)354-8488

## 뉴욕한인봉사센터 후원 "물품판매 모금행사"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소장 김광석) 건물 구입을 위한 후원으로 생활필수품 구입 시 10%를 적립하는 "물품판매 모금행사"를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SCNY.org](http://www.KSCNY.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718)939-6137

## "순례-순교의 시간" 유경옥 개인전

수곡미술회 회장 유경옥 전도사의 "순례-순교의 시간" 개인전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플러싱 천갤러리(대표 천취차)에서 열렸다. 설치, 유화, 믹스드 미디어 등의 기법을 사용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표현해온 유 전도사는 이번에 로마를 방문해 직접 촬영한 사진에 리터치 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박해의 역사를 표현했다. 로마 성지순례를 하며 사도 바울의 참수교회내의 부조와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시간 상징으로 사용해 오던 물거품 형태의 구조물을 넣어

전체 화면을 구성했다. 작품 '혈흔의 팔로세움'이나 '폼베이의 날'에서 물거품을 앞으로 세워 영어 'D'자로 보이게 한 것은 붉은 베스비오스 산과의 상징성을 돋보이게 했다. 옆 전시실에는 순례 작품이 아닌 드로잉과 소품, 수곡미술교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참가 회원들은 최미하 전도사(의상), 서양화가 이은순, 신동주 어린이 등. 작품 구입에 관한 문의는 (347)901-7472(유경옥 전도사)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 "분별력과 인격을 갖고 헌신하라"

## 동부개혁장신 제 2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박사) 제 2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13일 저녁 8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려 1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장영춘 학장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들어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둘째, 부끄러움 없는 일군이 되라 셋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 실력을 쌓으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훈시했다.



동부개혁장신 제 2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졸업생과 교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졸업예배는 이사장 이용걸 박사 사회로 기도 홍승룡 이사, 성경봉독 장영일 캐나다분교 교무처장, 찬양 글로리아선교중앙단, 말씀선포 고택원 총회장, 학사보고 이규분 학자가 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훈시했다.

동문회장, 격려사 전덕영 부이사장, 격려 및 훈시 정관일 캐나다분교장, 축사 김성국 이사, 축가 강혜영, 감사 이금순 졸업생대표, 기념품 증정 졸업생대표 최진식 재학생대표 이재환, 광고 이종원 총무처장, 축도 강기봉 학생처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택원 목사는 "부름받은 자의

행복"(요21:170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일꾼의 동의를 구하신 적이 없다. 단지 명령하신다. 졸업생들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지만 진리가 주는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전제하고 "부름받은 자의 행복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리는 행복-은혜, 둘째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누리는 행복-생명 살리기, 셋째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행복-순교가 있다"며, "목회 어렵지만 부름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로 행복한 사역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생은 △목회학석사: 김대진, 김진섭, 남태성, 박병섭, 박선강, 이금순, 최진식 등 7명 △여교역학: 권영주, 김정민 등 2명 △신학사: 김미권, 김인숙, 엄순애, 정재원, 한우연, 허준, 현종영 등 7명으로 총 16명이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1987년 9월 개교 이래 총 44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유원정 기자)



북미원주민선교 예비훈련 첫 모임에 뉴욕교협 임원진들이 참석해 예배드렸다.

## 1세와 2세가 손잡고 하는 북미원주민 선교 7월31일-8월6일, 매주일 오후 8시부터 8주간 예비훈련

북미원주민선교회가 주최하고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가 후원하는 2016 북미원주민 선교가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등지에서 진행된다.

원주민선교에 앞서 8주 동안 진행되는 교육 첫 모임이 지난 5일 오후 6시 뉴욕신광교회에서 열렸으며, 연합선교담계 뉴욕교협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임원들도 참가한 가운데 첫 모임이 진행됐다.

뉴욕교협 이종명 회장은 "지상최대의 명령"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며, 방학을 이용해 단기선교를 가겠다고 모인 학생들을 "대견하고 아름답다"고 격려했다.

이 목사는 목숨 걸고 한국(조선)에 복음을 전한 외국인 선교사의 헌신을 전하며, "그 헌신으로 여러 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서게 했다. 그들을 본받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가슴에 품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북미원주민 단기선교는 1세와 2세가 손잡고 하는 선교로, 2세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 진행되고 있다.

참가비는 450달러(둘째부터 350달러)이며, 참가 문의는 매 주일 오후 6시 뉴욕신광교회를 방문하거나 김기호 목사(646-763-4211), 샘김 목사(917-648-6659)에게 문의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화가 유경옥 전도사가 작품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지난 6일 뉴저지프라이미스교회에서 열린 3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호산나복음화대회 강사 이영훈 목사 6월 27-29일, 뉴저지 필그림교회에서

뉴저지한인교회(회장 이의철 목사)가 6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열리는 2016 호산나 복음화대회를 앞두고 5차에 걸쳐 준비기도회를 갖고 있다.

강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로, 교협 측은 "뽀뽀한 일정 속에도 뉴저지 한인들을 위해 시간을 내준 이영훈 목사에게 감사한다"며, 강사와 더불어 한국에서 중보기도팀과 엔젤스합창단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회장 이의철 목사는 "뉴저지 호산나 복음화대회는 뉴저지교협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이며 뉴저지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행사"라며, "이영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기 위해서는 2, 3년 전부터 섭의를 해야 할 만큼 어려운데, 지난 1월 연락을 취해 뉴저지지역의 영적부흥과 지역복음화를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영훈 목사님이 본 교회 주일 강단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주중에 대회를 열 수 있음을 알리고 임원들이 한국에 나가 직접 면담한 결과 금번에 강사로 오게 됐다"고 강사 청빙 과정을 밝혔다. 또 이 목사는 "모시기 힘든 강사

님이 오시게 됐는데 많은 성도님들과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 은혜 받기 바라고, 이번 기회에 뉴저지 지역이 복음화 되고 큰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저지교협은 지역 교회 찬양과 경배팀, 교회 성가대, 지역 성가단 등이 참여하는 이번 호산나 대회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 지역 교회들과 교회를 떠났거나 믿지 않는 이웃을 많이 초청해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회를 위한 5회의 준비기도회를 계획했으며 1, 2, 3차를 마치고 오는 16일 뉴저지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에서 5차는 23일 뉴저지소망장로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예정돼 있다. 또한 대회 기간 중인 28일(화) 오전 11시에는 뉴저지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며, 29일(수)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미주대한민국 어머니기도총연합회(회장 박에스더 목사) 주최로 이영훈 목사 초청 특별집회도 열린다.  
(유원정 기자)

# 제 5차 종말론 핵심 세미나

1. 이슬람 적 그리스도론의 성경적 근거 "중동집승"
2. 계시록의 구조와 해석 (계시록의 구조를 통한 확실한 해석)

● 일시: 2016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오후4시

● 장소: 주 예수 사랑교회(강유남 목사님)  
1155 Hendricks cswy, Ridgefield, NJ 07657  
(201)941-5555

● 대상: 목사, 사모, 전도사, 사명자

● 강사: 정진욱 목사 (공학박사, "중동집승" 역자)  
<http://blog.daum.net/pastorjeong>  
(908)265-2766, [pastorjeong@hotmail.com](mailto:pastorjeong@hotmail.com)



회비없음  
점심식사제공



# 제4회 미주청소년 효 글짓기-그림 공모전 시상식

## 효사랑선교회 주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주제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11일 오전 10시 플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길 목사)에서 제4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효사랑선교회 주최 제4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15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모전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그림 부문에서는 대상을 리아 김 △최우수상: 예녹 오, 유니스 오 △우수상: 제이콥 안, 스테이시 김, 박주원 △장학상: 다이엔 대한 남 △특별상: 자슈아 강 외에 14명 △장려상: 로라 김 외에 20명이 상을 받았다.

글짓기 부문에서는 대상 작품을 선발됐으나 수상자가 마지막에 상을 고사해서 안타깝게도 올해는 대상이 나오지 못했다. △최우수상: 줄리엣 이, 박예원 △우수상: 다이애나 이, 자슈아 조, 데이빗 동원 △장학상: 김지선, 줄리엣 이, 김한빈 △특별상: 피터 정 외에 8명 △장려상: 조셉 한 외에 7명이 상을 받았다.

김영찬 목사는 "이번에는 특별히

부모님과 관계, 추억, 이면을 와서 함께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작품들이 나왔다. 성경은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라고 했다. 효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뿌리,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 부문 심사를 맡았던 브라이언 안스 갤러리 대표도 "이번 주제가 표현하기 쉽지 않아서 많이 고

민을 해야 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다. 부모님과 소중한 추억을 소재로 전체적으로 구도나 색채처리, 그리고 완성도까지 나무랄 데 없는 작품들이 많았다.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모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글 부문 심사를 맡았던 임영호 목사(전 미주한인기독교인협회 회장)는 "올해로 4번째를 맞는 글짓기 공모전에 등록된 작품들을 읽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부모님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랑스런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다. 미국을 바꾸어 놓았던 대각성운동처럼 성경적인 효사랑을 일깨우는 이 운동이 이제는 신앙 유산을 물려받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전 세계적인 대각성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가수 하원 영 김 의원도 참석해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며 수상자 전원에게 특별상을 시상했다.

▲문의: (562)833-5520 (박준호 기자)



생명의 전화 창립 18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장로임직자 세분이 선서를 하고 있다. 원내는 본교회 담임 정장수목사.

## "전화 통해 위로하고 힘 돼준다" 생명의전화 18주년 기념 감사예배

생명의전화(원장 바다윗 목사) 창립 18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1일 오후 5시30분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윤영 목사)에서 바다윗 목사의 인도로 드려졌다.

김관진 목사 기도와 이미숙 집사 성경봉독에 이어 말씀을 들으신 지윤성 목사(안디옥장로교회 담임)은 "공홀히 여기는 자의 복(마5: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 목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는가?"라고 질문하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공홀히 여기며 사는 것이다. 세상은 부정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공홀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공홀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신권 목사(남가주교회 회장)는 한 영혼 구원사역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생명의전화 바다윗 목사와 사역원들에게 축사의 말을 전했다.

염규서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는 "사고와 질병 죽음과 테러가 난무하고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번에는 상실감과 고독감, 실패의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이 돼주며 18주년을 맞이한 생명의전화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19기 수료자 9명(김순애, 김재훈, 신미경, 유숙희, 이미숙, 장한나, 최국희, 최미성, 한선영)과 봉사자에게 감사장 및 메달을 수여하고 강영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생명의전화는 19년 전 LA에서 사역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이민의 삶 가운데 겪는 아픔들을 전화로 통해 위로하고 힘이 돼주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생명의전화는 이 사역에 동역할 상담원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213)480-069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 "하나님의 꿈꾸며...세상을 행복하게" 올림픽장로교회 설립24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는 12일 오후 4시 설립 24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갖고 18명의 새로운 임관을 세웠다.

1부 예배, 2부 임직식, 3부 축하 및 권면의 시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축하객들과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됐다.

정장수 목사 인도 시작한 1부 예배는 기도 서오석 목사(나성평화교회), 설교 박형주 목사(미주영안교회)가 맡았다.

박형주 목사는 "신앙의 길과 신앙의 자세"(마26:17-19)의 제목으로 "신앙생활이란 예수의 제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기 무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 상속자로 축복의 길로 들어선 자들이다. 오늘 세워진 임직자들은 '현신의 자세', '순종의 자세', '자아 성찰의 자세'로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직식을 통해 △장로취임:

강이훈, 구제영 △장로임직: 김인규, 이응용, 전수일 △안수집사 임직: 김선진 김재철, 양진욱, 음인정, 이경훈, 정세용, 조한평 △시무권사: 김예자, 김용숙, 오재경 △사역권사: 김선이, 이순연, 이정자가 새 임근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날 권면은 임바목 목사(솜솜교회)가 맡았으며 임직자 대표 강이훈 장로가 담례의 말을 전한 뒤 강순영 목사(JAMA 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올림픽장로교회는 1992년 글렌데일에서 시작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상황에 기뻐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에 앞장서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복음전파에 힘쓰며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부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4년 현재의 장소인 3119 W. 67가로 이전했다. (이성자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동문교회 창립28주년 및 제6대 김광삼 담임목사 취임예배  
동문교회 창립28주년 및 제6대 김광삼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18일(토) 오전 11시에 갖는다.  
▲문의: (213)483-6625

제3회 그린엔젤스배 친선 축구대회  
LA와 OC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린엔젤스 선교축구단(대표 김석범)이 주최하는 제3회 그린엔젤스배 교회 및 일반인 친선 축구대회가 18일(토) 오전 8시 세리토스 스포츠 콤플렉스(19900 Bloomfield Ave)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구대회는 교회팀과 일반팀 총 13팀이 대항전을, 세미프로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4개국 팀이 친선경기로 치르게 된다. 대회 예매시간에 멕시코 글로리아 선교팀이 찬양과 드라마로, 그리고 김상현 목사(섬기는교회 담임)가 설교를 맡는다.  
▲문의: (714)319-7978

소프라노 구영순 리사이틀  
소프라노 구영순 리사이틀이 '이민사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음악회'라는 주제로 21일(화) 오후 7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리사이틀은 테너 오위영 목사, 바리톤 장상근, 최홍석, 엘토 조지영이 찬조 출연한다.  
▲문의: (310)404-5555

미주장신대 학생모집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2016년도 가을학기 학생(신학사, 교역학석사)을 모집한다. 또 이번 가을학기부터 크리스천 상담심리학 석사과정도 개설한다.  
▲문의: (562)926-1023



소망소사이어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 150, 151차 소망교육세미나 개최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제 150차, 151차 소망교육 세미나가 6월 6일과 10일 옐렌지 카운티와 LA에서 각각 개최됐다.

150차 소망교육 세미나는 은혜 한인교회 총권사회 초청으로 '종교개혁의 빛'에 유분자 이사장이 참석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란 주제로 소망소사이어티 사역을 소개하고 소망우물을 알리면서 본인 삶의 여정을 간증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는데 100명이 참여했다.

또한 151차 세미나는 LA 웨스턴 양로보건센터의 초청으로 개최됐다. 100여명의 양로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매 예방을 위한 웃음치료를' 주혜미 사역국장인 진행했고, 유분자 이사장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주위 사람들과 용서와 화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아프리카 차드에서 벌이고 있는 소망우물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금번 세미나에는 소망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신기증운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해 시신기증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초청모임과 양로보건센터에서 소망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후원금을 전달해 소망소사이어티를 격려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장로교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안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손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장로교회: 오후 2:0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igcusa@yahoo.com / www.lai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Bre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영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영어예배: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fresca	<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월-금 예배: 오후 11:20 영어권(영소-KDC, 링컨도원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c.org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cc.org	<b>중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gk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통계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목요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3부: 오전 11:00 (청년)새벽: 오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3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1:30(청년) 성찬예배: 오후 11:00(청년) 대학영어예배: 오후 1:00 영안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c.org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8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A),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예배: 저녁 7:30 금 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 학교: 오전 6:00(토) 수요일영어예배: 오후 7:00 www.irli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염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어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찬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목회자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선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 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ic.org	<b>중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목요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3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ly.com / e-mail: pastor@cornestonely.com Tel: (310)530-4040(CA),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진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8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단기 선교 시즌 시작

해의 단기선교 시즌이 시작됐다. 크리스천들은 1~2주 정도의 여행을 통해 선교현장을 방문하고 선교사역에 동참하면서 큰 도전을 받는다. '보내는 선교사'가 아닌 '파송 선교사'로서 경험을 하는 것이어서 단기선교는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지 않거나 필요에 대한 파악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활동하는 것은 선교가 아닐 수 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 테러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매년 한국교회에서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인원은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참여 인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교회의 단기선교 프로그램은 여전히 중복되거나 제한적이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선교 현장 눈높이 맞추고 안전 준비 철저히

◇현장 중심, 선교지 상황에 맞게=미션파트너스(대표 한철호 선교사) 산하 21세기단기선교위원회는 최근 '2016년 21세기단기선교위원회 아시아포럼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단기선교는 현장 중심이어야 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단기선교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인도에서 활동 중인 박모 선교사는 "단기선교는 지역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무언가를 하겠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역을 하려면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기초가 바로 언어 준비"라고 말했다.

김진영 베트남 선교사는 프로그

램 개발, 현장 선교사와의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단기선교 프로그램이 대부분 비슷하다. 사역 의지는 강한데 결국 드라마와 마임만 한다"며 "어떤 팀들은 화려하게 공연하면서 사진과 비디오 찍으면 대단한 사역을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배우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지인들이 스스로 무엇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기팀과 현장 선교사가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장 선교사들이 현지 가이드로 전략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일부 단체와 교회들이 선교사와 협조하지 않고 단독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기 상황을 초래

하거나 현지 문화를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백석대 장훈태(선교학) 교수는 "교회는 단기선교 출발에 앞서 성경적 선교 이론과 문화, 역사를 참가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현지에서 선교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북유럽파를 위해 연합정신을 발휘하라"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효과적 단기선교를 위해

'예의를 지킬 것' '조용하게 움직

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출된 피부나 옷에 얇게 바르되 눈이나 입, 상처부위 사용은 피한다.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kr)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 접경 지역이나 필리핀을 방문할 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라마단 기간(7월 5일까지)에 미국이나 유럽 지역을 향한 테

러 주의보도 나왔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김복권)은 단기팀 운용 지침으로 '3~4명 단위로 조를 편성해 이동하되 단독행동이나 이탈을 자제할 것' '생활물전기 등 다중연락망을 준비할 것' '현지 문화 이해 부족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리서치를 철저히 할 것' '경찰서 등 현지 여류 시엔 영사 지원을 요청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진대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교부가 제공하는 여행자 사전등록제를 활용하고, 해외안전여행(0404.go.kr)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리 주의보도 나왔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김복권)은 단기팀 운용 지침으로 '3~4명 단위로 조를 편성해 이동하되 단독행동이나 이탈을 자제할 것' '생활물전기 등 다중연락망을 준비할 것' '현지 문화 이해 부족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리서치를 철저히 할 것' '경찰서 등 현지 여류 시엔 영사 지원을 요청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진대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교부가 제공하는 여행자 사전등록제를 활용하고, 해외안전여행(0404.go.kr)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개혁실천기도성회 개최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대회장 소강석 목사)는 12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로 새에덴교회에서 '한국교회개혁실천기도성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부흥의 본질이 성령충만에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성경과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 정칙과 정령 등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명예대회장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오직 성령으로'라는 설교에서 "참된 부흥을 하려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처럼 성령충만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며 은혜와 기

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부흥하기 위해선 '분열'이라는 상처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130년간 부흥을 경험했으며 선교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예수의 흔적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자리 때문에 다투다보니 분열됐다"면서 "이렇게 아픈 상처를 겪으며 영적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개혁은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바꾼다"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한국

교회가 예수님 제일주의와 성령충만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자"고 독려했다.

민경배 백석대 석좌교수는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불린 한국은 누적된 풍부한 복음주의 유산과 히브리서에 나타난 행동의 신앙으로 무장된 현대적 교회가 준비하다"면서 "특히 한국교회 안에는 헌신된 일꾼이 많다. 한국교회에는 세계교회 개혁을 주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강석 대회장도 "한국은 성령운동의 '터보엔진'을 달고 거룩성과 영광성을 회복해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복음의 본질로 복귀' '목회자의 영성·윤리성 회복 및 교회갱신' '개교회주의 극복과 연합' '공정하고 깨끗한 교회선거' '교회분

제는 교회 내 중재기관에서 해결'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 실천' '민족의 화해·평화·통일 노력' '세계의 화해·평화·하나님 실현' 등 한국교회 개혁과제 8개항을 발표하고 실천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권태진 박용순 강권식 이효상 목사, 정인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총장, 이말태 루터대 교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박홍일 장로 등은 8개항 관련 기도문을 낭독했다.

기도자들은 한목소리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회개의 마음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면서 "구속사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기도했다. 차기 성회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다.

## 예장합동 101회 총회 임원 후보 등록 마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지난 10일 제101회 총회 임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일정에 돌입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남선 목사)가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제101회 총회 임원 후보자 등

## 임원 후보 등록 마감

록에서는 볼 노회에서 추천 받은 후보 11명이 모두 등록했다. 선관위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후보자 자격여부 심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후보 등록을 통해 목사 부총회장과 부서기 선거에서 경합이 벌어질 전망이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영우(충청노회 서천읍교회) 목사

와 정용환(목포노회 시온성교회) 목사가, 부서기에는 김상현(수도노회 목장교회) 목사와 권순웅(평서노회 주다산교회)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9일 후보 등록을 마친 김선규(평양제일노회 성현교회) 목사는 전례에 따라 제101회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장로부총회장에는 김성태(대구수성노회

## 학원 심야영업 제한·학원휴일휴무 법제화

### 좋은교사운동·쉽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촉구

기독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 임종화)과 쉽이있는교육시민포럼이 20대 국회에 학원 심야영업 오후 10시 제한과 학원휴일휴무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가혹한 학습동맹에 짓눌리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20대 국회가 학원 심야영업 오후 10시 제한 등 쉽이 있는 교육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역사가 발전

해 15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주5일제 시행으로 노동자 휴무를 보장하는 시대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들은 과거보다 가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70(일반교)~80(특목고)시간에 이르고 있지만 '학습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란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학습노동은 탐욕과 불안에 기초한 사회의 구조적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타 시도

와 형평을 맞춘다는 이유로 서울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시의회를 비판했다. 2009년 교육부가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토록 했고, 지난 2일 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영업 제한이 합헌인 판결을 내렸음에도 연장 조례를 추진하는 건 학원업계의 입장만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조례를 추진하는 박호근 서울시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회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심야영업 연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및 서울시의회 의장에게도 질의서를 보내 조례안에 대한 입

장을 물었다.

또 "전국에서 서울 등 5개 지역만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지체로 떠넘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국민적 여론을 받아들여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학원 심야영업 10시 제한과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질의를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뒤 받은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영업시간 연장 반대 및 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판매행위와 물건판매, 기부금 모금 행위 등을 한 것도 서울시 조례 위반이다.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에는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입상,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또한 '광장 내에서 음식을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펼켄' 등 수십 개의 부스에선 맥

주 보드카 샌드위치 음료 등을 판매했으며, '프라이빗 비치'라는 공식 부스에선 행사 티켓을 유료로 판매했다. 참석자들은 광장 내 상인으로 부터 소주와 맥주를 구입해 벚꽃이 술판을 벌였다. 일부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애연까지 끝나고와 부스를 관람했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해에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지만 서울시는 광장 관리의무를 사실상 포기했다. 전기호 서울시 총무과 서울광장 담당은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선 계속 주시시키고 있다. 점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 “동성애자는 ‘미전도종족’ …선교 대상”

### 제1회 탈동성애 포럼 개최...미국사회 반면교사로

탈동성애인권포럼은 13일 서울 중구 뉴주호텔에서 '제1회 탈동성애 포럼'을 개최하고 동성애를 인정한 미국 사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교회와 동성애 이슈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강사로 나선 엑스더스 글로벌 연맹 댈빈 W 왕(65) 이사장은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은 미국교회의 영성이 떨어지고 영적 타락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도 이런 비극적 상황이 오기 전에 동성애자에 대한 전문 지식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동성애 생활양식이 나타나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고 조언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심리상담사인 왕 이사장은 "동성애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동성애가 정상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애는 1968년 미국 정신장애목록에 처음 등재됐지만 73년 임상과학적 근거가 아닌 투표를 통해 삭제됐다. 대신 '성지향성 장애'로 표기했지만 아마도 87년에 완전히 없어졌다"고 개탄했다.

왕 이사장은 "동성애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자녀들이 2~10세 유소년기 때 성적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서 "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를 전도가 안된 미전도 종족으로 바라보고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탈동성애자인 이요나 홀리라이프 대표도 "그들을 '성소수자'로 부르기보다 동성애자, 음란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로 불러야 한다"면서 "동성애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동성애자 파트너가 아니라 정상적인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미국교회가 더러운 성문화에 대해 비판적 설교를 하지 않고 침묵했기 때문"이라면서 "음행과 간음, 동성애의 문제는 성경적으로 분명할 수 없는, 명백히 잘못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동성애자들은 성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들을 진정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면 동성애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는 지난 11일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이후 다양한 동성애 반대 활동을 준비 중이다. 17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선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한국시민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도 오는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동성애 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평가회의를 갖는다. 대구지역 교계도 오는 26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동성애에 이즈예방연구소와 공동으로 15일 대구국동방송에서 강좌와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 “동성결혼 합법화 각하…끝 아닌 시작”

### ‘동성혼 각하의 의미와 전망’ 좌담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프라이밍 전쟁' 속 한국교회가 정교한 대응전략을 갖고 동성애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변호사는 "세계적으로 동성혼 합법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정면으로 요구한 최초의 소송인데, 대한민국 1심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변호사는 "1심 법원은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은 남녀 간의 혼인만 인정하며, 동성혼까지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또 인간의 자유에는 법률적·도덕적·풍속적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도덕한 동성애 확산 방지와 동성애 반대 활동 자유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의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은 1971년 시작됐으며, 45년 간 지속적인 투쟁을 거쳐 합법화됐다"면서 "동성혼 소송은 결혼의 개념을 재정의하며 사회질서의 근간, 뿌리를 갈아엎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대구 26일 퀴어축제 비상

### 교계, 실제 알리기 활동...유인물 배포·성명 발표키로

동성애자들의 퀴어문화축제가 11일 서울광장에 이어 오는 26일 대구에서도 열린다. 대구 지역 교계는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최근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제8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자금지원의 퍼레이드를 26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연극제, 사진전, 토크쇼, 영화제 등도 다음 달 3일까지 개최한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기총·대표회장 최영태 목사)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에서 동성애 행사가 또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8일 긴급 모임을 갖고 시민들에게 동성

애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미 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는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로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표현도 불법이 된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저지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나선 한효관 건강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조직을 통한 조직적인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과 정부 압박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도 "동성애자들이 약자, 피해자 이미지를 앞세워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전쟁에서도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논쟁이 '프라이밍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시민사회, 언론, 국회의원과 함께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민낯 드러낸 동성애 퀴어축제

### 음란행위·술판·흡연…불법 목인한 경찰·서울시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에서 불법 음란행위가 판을 쳤는데도 이를 묵인한 경찰과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스를 설치, 나체 사진을 전시하고 동성 성기모양도 그림책을 판매했다. 여성에도 부도덕한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러브'라는 책도 팔았다.

속옷 차림의 여성이 등단해 사회를 뒀고 팬티만 입은 남성이 광장을

활보했다. 상의를 탈의한 동성애자들은 퍼레이드 때 키스를 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광장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

형법 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는커녕 경찰버스와 차단막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이날 104개 부스를 운영하며 주류, 음식



# 인/터/뷰 새찬양후원회 김명환 선교사

## “어린이들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어린이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를 도와나갔으면 합니다.”

새찬양후원회 김명환 선교사는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위해서는 찬양이 생활화 되는 삶을 살게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01년 분당할렐루야교회에서 시작돼 10년간 열여섯 새찬양축제는 현재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당시 분당할렐루야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사역했던 김 선교사는 세계 곳곳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왔다고 전했다.

김명환 선교사는 어린이 찬양은 복음을 심어주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먼저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이 발달돼 과거에 비해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뒤떨린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세상에 휩쓸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한몫하고 있는데, 클릭 한번 잘못했다가 성인 사이트 등 뒤떨린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게임에 빠져있던 학생이 새찬양축제 참가를 계기로 게임중독에서 벗어나 찬양하는 영혼이 되는 등

새찬양축제를 통한 다양한 열매들을 접하게 됐다고 그는 회상했다.

“컴퓨터게임에 푹 빠져 있던 학생에게 학생의 부모가 새찬양축제 참가신청을 하고 준비하라고 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참가 등록된 통지서를 받아든 학생이 정신이 번쩍 나서인지 하고 후 집에서 피아노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결국 3등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해에 더 좋은 성적을 받기위해 준비하고 그리길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 남성합창단의 반주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 세계 25개 도시서 ‘새찬양축제’ 개최...복음심기 최적 보컬,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기타 등 부문 다양해

지난 2005년 미국유학길에 오른 김명환 선교사는 이 유학길에 새찬양축제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열었던 대회를 미국 LA, 뉴욕, 달라스, 플로리다 델본, 캔터기 루이빌, 네바다 리노를 비롯해 그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을 비롯한 3곳,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으로 확산돼 실시되고 있다.

찬양대회는 단지 찬양축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경연대회형식을

가미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상장과 메달까지 수여해 참여하고 자 하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단지 찬양축제로만 진행하면 대회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가를 안하려고 하니까요. 특별히 캄보디아는 90%가량이 불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음악으로 찬양제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장르도 보컬을 비롯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기타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눠 실시가 됩니다.”

새찬양축제는 특정한 시기에 열리는 것이 아닌 해당도시에서 가장 개최하기 적합한 시기에 열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5월, 아프리카는 9월, 인도는 10월, 그리고 장소는 학생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선정된다.

찬양대회는 단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닌 행사 중간에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복음이 완전히 심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열리기도 하는데 단지 찬양만 한다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뭔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찬양과 말씀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새찬양후원회는 60/2020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60/2020 비전은 2020년까지 전 세계 60개 도시에서 새찬양축제를 실시해 해당지역에 찬양과 복음이 심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김명환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어린이찬양 보급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피아니스트인 그의 아내의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제가 찬양곡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다른 작곡가들은 자녀들을 위해 노래를 만드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생각이 있어’ 라고 대답은 했지만 대답을 하고 나서 뭔가 한대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아내의 입을 통해 ‘넌 뭐하고 있지?’라고 하는 음성 같았거든요.”

한 열매는 앞에서 언급했던 게임중독까지 갔던 학생이 찬양단 반주자가 됐으며 교회반주자, 찬양사역자로 활동하는 것을 들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길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며 인생이 변화됐음을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는 16년 전 대회 참석한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올해 4월 남가주교회음악협회에서 개최한 어린이 찬양경연대회를 함께 열면서 대회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1회보다 2회 대회가 더 어려웠다는 이야기였다며 그 이야기 기사가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대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음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말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합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인색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은 쏟아부어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니까요. 아마도 다음세대 사역을 실시했다니 교회재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사역안할 교회는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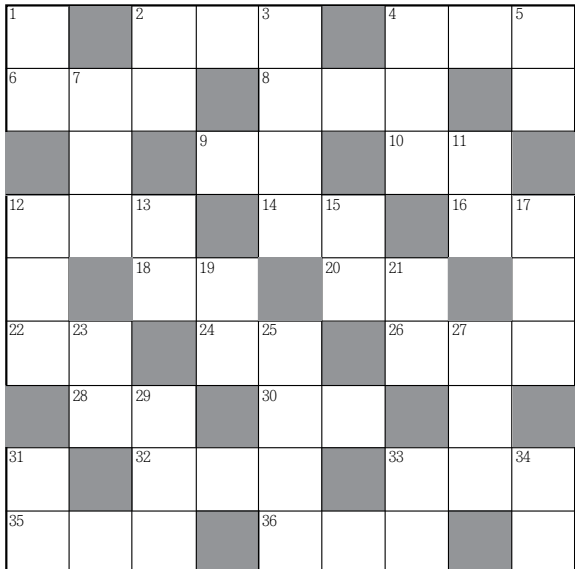
그는 한국의 경우 50%가량의 교회들이 주일학교사역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왔으며 이민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김 선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영성이 깊은 찬양곡들을 전수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찬양후원회가 힘써 나갈 것이라 말한 김명환 선교사는 현재 캄보디아 호산나학교(한인선교사가 설립한 미션스쿨), 이화여대에서 설립한 이화시립초등학교, 캄보디아 국립예술중등학교 등지에서 찬양과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박준호 기자)

### 십자말 • Cross Word (128)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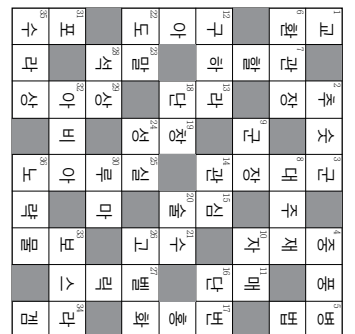
#### <가로 푸는 열쇠>

-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들이는 일꾼(마13:30).
- 뇌일혈로 말미암아 반신 또는 팔 다리 등 몸의 한 국부가 마비되어 감각이 없어지고 부자유하게 되는 병(행8:7).
- 내시의 우두머리(단1:3).
- 큰 임금, 하나님(마4:13).
- 원시 부족사회에서 신관, 관리, 군인 따위 지배계급의 위에 섰던 최고 지배자(단10:13).
- 여자끼리의 언니와 동생(롬16:1).
-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고전10:24).
-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함(사5:12).
-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에 죽으심이어야...(롬6:10).
- 짧은 창(수8:26).
- 술책(갈5:20).
- 발라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함(느4:5).
-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잠19:1).
- 사해 서편 엔게디 근처에 서식하는 예쁜 꽃(아1:14).
- 돌로 만든 여러 가지 형상(겔26:11).
- 팔레스틴의 한 지방(왕하23:36).
-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부친이다(삼상9:1).
- 예동왕 요방의 중요 도시이다(창36:33).
- 임금에게 올리는 진지(삼사).
- 떼를 지어 약탈한 물건(히7:4).

#### <세로 푸는 열쇠>

- 서로 바꿈(룻4:7).
- 만족들이 사는 부락의 우두머리(창34:2).
- 군대의 우두머리(느2:9).
- 다름질의 화해를 붙이는 사람(사59:16).
- 전쟁때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삼하17:8).
- 관찰하는 아래(민33:1).
- 단 마다(민23:30).
- 로마에서 입교한 고린도인(롬16:23).
- 한 에브리임 사람(대상23:8).
- 온당하지 않게 고집을 부리는 마음(대하36:8).
- 꽃 이름. 분꽃과에 속하는 다년초(아4:14).
- 번성하여 잘 되어감(전2:9).
- 무슨 일을 하는데 애쓰고 힘을 들임(욘9:29).
- 맨 끝자리(눅14:9).
-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자(고후1:19).
- 로마황제가 임명한 유대총독(행23:26).
- 코끼리 이빨로 만든 책상 혹은 식탁(암6:4).
- 총을 쏘 짐승을 잡는 사람(렐16:16).
- 보배로운 물건(왕상14:26).
- 므나세의 후손 마길의 자손(대상7:16).

#### 십자말 정답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제3차

종교개혁 500주년 (1517-2017) 기념

# 종교개혁 발상지 유럽 학습여행

여행일정: 2016년 9월 12일(월) - 9월 24일(토) 총 12박 13일

참가경비: 3,900달러

문의전화: (213)383-2345

직통전화: (818)624-2190

- 런던
- 옥스포드
- 파리
- 융프라우
- 제네바
- 취리히
- 보름스
- 프랑크푸르트
- 라이프치히
- 에어프루트
- 아이제나흐
- 비텐베르크
- 드레스덴
- 프라하

**9째날**  
9월20일



**바르트부르크**  
독일 아이제나흐 인근의 성으로써 중세 튀링겐 지방의 문화의 중심지였다.

**3째날**  
9월14일



**옥스포드대학교**  
영국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카운티(Oxfordshire county) 옥스퍼드시에 있는 공립 종합대학

**10째날**  
9월21일



종교개혁일은 개신교의 탄생기념일입니다. 오는 2017년은 개신교가 탄생한지 500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크리스천 위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제3차 종교개혁 발상지 학습여행을 실시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낸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요한 웨슬리, 쾰빙글리, 존 나스, 그리고 안 후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행적을 찾아나서는 이번 학습여행을 통해 개신교 탄생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는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반 여행사들이 찾지 않는 종교개혁을 주제로 한 선택 여행 루트이기에 맞춤형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째날**  
9월17일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여정
1일 9.12(월)	LA			LA 공항 국제선 터미널 집결, 런던행 항공기 탑승
2일 9.13(화)	런던	전용버스		런던 도착 후 트라팔가, 런던 브리지 등 관광 후 석식, 호텔 휴식
3일 9.14(수)	런던	전용버스	08:00	(영국의 종교개혁 관련 순례) 울더스 게이트, 요한 웨슬레 생가, 교회, 변힐 필드, 옥스포드 대학 등 순례
4일 9.15(목)	런던 파리	전용버스 유로스타	08:00	버킹검궁(근위병 교대식), 대영 박물관,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빅벤 등 관광 후 유로스타 편으로 파리로이동 후 호텔 휴식
5일 9.16(금)	파리	전용버스	08:00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샹젤리제, 몽코트 광장, 노들담 사원, 세느강 유람선(오후) 등 관광 후 호텔 휴식
6일 9.17(토)	파리 제네바	기차 전용버스		제네바 행 기차 탑승, (칼빈의 종교개혁관 련 순례) 칼빈이 목회했던 St. Pierre교회, 목사관, 바젤대학, 종교개혁 기념비, 레만 호수 등 순례 후 호텔 휴식
7일 9.18(일)	제네바 취리히	전용버스	7:00	인터라켄으로 향할,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산악열차) 등정 후 쥘리히로 이동 후 휴식
8일 9.19(월)	취리히	전용버스	7:00	쾰빙글리가 목회했던 그로스윈스터 교회, 사갈의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한 프라우 윈스터 교회 순례 후 하이델베르크로 이동, 하이델베르크 고성, 대학가 등 순례 후 보름스(마틴루터가 보름스 종교재판을 받은곳, 순례 후 호텔 휴식
9일 9.20(화)	프랑크푸르트 아이제나흐 에어프루트		7:00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괴테하우스, 뢰머광장 순례 후, 아이제나흐로 이동, 루터 생가, 바르트부르크 고성(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곳) 바하 관련 순례 후 에어프루트 도착 휴식
10일 9.21(수)	에어프루트 라이프치히 비텐베르크		7:00	마틴루터가 대학을 다니고 수도생활을 시작한 에어프루트 순례, 에어프루트 돔, 크레머 다리, 페데스부르크 요새 등 순례 후 라이프치히로 이동, 바하가 지휘자로 근무한 St. Thomas교회, 통일 독일의 시발점인 훗츨시위로 유명한 St. Nicolas교회 순례 후 비텐베르크로 이동, 비텐베르크교회(95개조 반박문이 걸린 곳), 마틴루터와 열광하던 동상, 마틴루터 생가, 박물관 순례 후 호텔 휴식
11일 9.22(목)	드레스덴 프라하		8:00	동부독일의 파라라 불리는 드레스덴 관광 후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 이동, 석식후 아름다운 프라하의 야경 관광 후 호텔 휴식
12일 9.23(금)	프라하		8:00	(안 후스 종교개혁 관련 순례) 안 후스 기념(베들레헴)교회 순례, 프라하 고성, 대통령궁, 비트성당, 카를교, 바츨라프 광장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프라하 관광 후 휴식
13일 9.24(토)	프라하 LA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프라하 출발 LA 행 항공기 탑승. LA 도착후 SWEET HOME 으로...

**12째날**  
9월23일

## 여행참가자 예비모임

- 일시 2016년 7월 22일(금) 오후 6시
- 장소 UCS 대학교 채플
- 3130 Wilshire Blvd #210, Los Angeles, CA 90010
- 전화 (213) 388-5992

-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 파킹은 건물 지하에 무료파킹이 가능합니다
- 여행 참가자외에도 이번 여행에 관심있는 분은 참가할수 있습니다

주관: 크리스천 위클리(발행인 조명환 목사), 후원:미주웨슬리언연합회(회장 황기호 목사)



사모 단상

행복한 가정의 롤모델

필자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 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목사님 가정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 이고 본받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목회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항상 두 분이 늘 기쁨

부교역자 사모의 위치와 역할

필자의 남편 목사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인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지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미국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중매가 들어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미국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클리블랜드한인교회를 개척하였다.

나?"라는 말을 듣게 된다. 또 부목사가 담임목사보다 설교도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아이구, 저러다가 교인들을 끌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부목사는 담임목사보다 더 잘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못해도 안 되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때 사모가 지혜롭게 옆에서 내조를 잘해야 한다. 만일 사모가 부목 사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남편에게 "당신,



이희숙 사모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4)

이 충만하며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표정이 좀 어둡고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자녀들은 구김살이 없이 아주 명랑하고 발랄하고 표정이 밝아서 좋아요"라며 부러워했다.

한번은 어느 박사님의 가정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 분이 "제가 이병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교회로 나오기를 결정한 것은 목사님의 가정이 아주 행복한 가정이고 롤 모델이 되는 가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 아름답고 행복한 목회자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다. 피차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과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장미정원

필자는 집 앞 뜰에 예쁜 화단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장미와 갖가지 꽃을 심어 놓고 즐긴다.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장미꽃 밭 앞에 멈추어서 코를 갖다 대고 장미향을 맡으며 즐거워 소리로 "You have such a beautiful rose garden! We enjoy so much passing by your beautiful garden!"(당신의 장미 정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 집 앞을 지나면서 너무나 즐겁습니다)하면서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그 화단에 봄에 꽃을 심어 놓고 바쁘다고 돌아보지 않으면 금세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나고 시든 구경있들이 생기고 벌레가 생겨서 앞을 झा막여서 엉망이 된다. 관심을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는 해충제를 뿌려서 제거해주고 물과 비료를 주기적으로 주면서 돌볼 때 꽃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가꾸어 나가며 서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고 불평, 원망, 시비 등의 벌레는 감사라는 살충제를 듬뿍 뿌려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딤후2:4-5). 훌륭한 사모이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중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후로 휴스턴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다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필자가 한인교회에서 부목사 사모로서 지내면서 사역한 경험은 전혀 없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교역자를 두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가꾸어 나가며 서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고 불평, 원망, 시비 등의 벌레는 감사라는 살충제를 듬뿍 뿌려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점을 나누고 싶다. 혹시 이 사모학 책을 읽는 사모님들 중에 현재 남편이 부교역자의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보고 깨달은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교회와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교회에 청빙하는 것은 담임목사의 목회에 도움과 협력을 주고 교회 성장과 발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목사는 항상 담임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시하는 일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필자의 남편 목사의 제자인 이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하였다. 목회에 열중하다보니 과로하여 건강이 나빠져 부목사 두 명을 채용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그 제자 목사한테 전화가 왔다.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구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 도움을 받고자 부목사를 채용했는데 오히려 신경이 너무 쓰여 차라리 안 둔 것만 못해요. 제가 부목사들을 섬기느라고 고생이 더 많아요?" 하더니 결국 얼마 후에 부목사 두 분을 다 내보냈다고 한다.

담임목사가 출타중인 어느 교회에 필자의 남편 목사가 주일설교 부탁을 받았다. 주일설교를 하기 위해 가보니 사회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려고 자기 식대로 사회를 하며 얼마나 설치는지 '저분은 오래 남아 있지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 결국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부교역자의 위치는 참 힘든 자리이다. 담임목사보다 못하면 '부목사가 어떻게 능하니 담임목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부목사 노릇만 할 거야? 많은 성도들이 당신이 담임목사님보다 훨씬 더 설교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하면서 충동질하면 남편도 마음이 흔들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부목사로 훈련을 받으면서 인내하며 겸손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

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최근에는 한 후배 목사가 은퇴를 4년 남겨놓고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동안 음악목사 겸 행정목사로 있던 부목사와 사모가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면서 담임목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 후배 부목사를 좋아하는 상당수의 세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 부목사를 내보내면 당장 교회가 반쪽이 날 것이고, 그냥 목회를 하거나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차라리 자기가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물론 상담 후에 기도를 해드리고 절대로 교회를 사임하지 말고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교회 강단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그 후배 목사님과 사모님은 겸손히 기도했고 몇 달 후에 부목사 가정은 결국 스스로 사임하고 교회를 떠났다. 자신이 부목사로 사역을 섬길 때 진실하고 정직하게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충성스럽게 담임목사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의 복된 길을 열어 주시고 목회를 축복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분란을 일으켜 담임목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부목사는 결코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없음을 목회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삼상27:1)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을 뻔했는데 살려 준 사실을 알고 정말 깊이 깨닫고 잘못을 뉘우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믿지 못하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4개월 동안 머물며 신앙적으로 많이 약해져 결국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는 아말렉에게 식구들과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하시므로서 드디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뻔했던 다윗을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졸지에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또 다시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화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삼상27:1-2)

본문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직전 사울왕과 있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사울과 헤어진 후 사울왕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목할 단어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현실의 묶여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줬는데 가만히 이 마음

에 생각해보면 안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또다짐 아기스에게 간 것은 그의 인생에 또 다시 한번 큰 실수를 저지를 일임을 보여줍니다. 일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피한다고 하지만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위험할수록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삼상27:2-7)

다윗이 함께 있는 6백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건너갑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지만 영적으로 훌륭하게 왕이 될 훈련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군사력도 쌓이

고 힘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려고 블레셋으로 감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져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돼도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목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삼상27:8-10)

블레셋으로 넘어간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10절). 당장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세상의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상황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

나님과 나와야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 반드시 내가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길은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모든 위험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 그는 영영히 내 사역자가 되리라(삼상27:11-28:2)

성도가 세상에서 잘살아 보기위해 거짓말을 하면 세상은 금방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습니다. 지금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 백성을 치면서 나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다윗은 나의 영원한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한 번 믿음의 길을 이탈하면 금방 마귀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

국 다윗은 이제 정말 동족을 치러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28:1).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대답입니다. 아기스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치러가야 한다하니 "당신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애매모호한 대답입니까. 성도가 정직하지 못하고 유혹을 당하면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게 됩니다.

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재를 보고 두려워서(삼상28:3-7)

삼상28:4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왕의 몰락에 대해 그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능력 있고 전쟁에 나가지만 하면 승리했던 왕(삼상14:47, 48)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의 아들들과 전쟁에 나가서 모두 죽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영적인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 5절에 블레셋 군대를 심히 두려워해 크게 떨니다. 사울왕은 처음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말씀을 불순종하고 조금 될 만하니까 교만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때부터는 늘 블레셋만 보면 두려워하여 발발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umran, Dandenong, Roman Catholic, etc.



2016

# 호산나복음화대회

## “인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강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어린이부흥회**

**Taeriah Kim**

Children's Ministry of Catalyst Agape Center  
Columbia College of Columbia University, BA  
in Neuroscience and Behavior with  
pre-med concentration in anthropology

**일시 : 6월 27일(월)~29일(수), 저녁 8시**

**장소 : 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 시무)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201-843-2222



###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New Jersey  
P.O. Box 205, Palisades Park, NJ 07650 / njkoreanchurches@gmail.com / 201-600-7343